

# 요한복음강해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Th. D. Rev. Paul Kim

([www.ermcus.org](http://www.ermcus.org) / [ets@ermcus.org](mailto:ets@ermcus.org))

## <서 문>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시’이다.

이 계시는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으며, 구약의 예표가 메시아를 가리킨다면 신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Incarnation)의 사건에서 출발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사명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준다.

성육신의 목적은 단순한 나타나심이나 가르침에 있지 않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에 있다. 이 구원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으로 오시어 그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믿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며, 동시에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르심은 과거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복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른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레마'**는 환경과 상황, 사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로고스)의 본질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기록해 두기를 바랍니다.

다만 **'레마'**는 주관적 체험일 수 있으므로, **'나의 레마'**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별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나의 강해'**로 정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강해는 서로 질문하고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강해입니다.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ets@ermcus.org](mailto:ets@ermcus.org)로 보내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 목 차 >

제1장 말씀의 성육신과 생명의 빛	p.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 / 생명과 빛 / 세례 요한의 증거	
제2장 첫 표적과 참 성전	p.24
가나 혼인잔치 / 물이 포도주로 / 성전 정결	
제3장 거듭남과 영생의 길	p.29
니고데모와의 대화 / 물과 성령 / 믿음과 구원	
제4장 생수와 참된 예배	p.36
사마리아 여인 / 영과 진리의 예배 / 생수의 약속	
제5장 생명의 권세와 심판	p.43
베데스다 사건 / 아들의 권세 / 하나님의 증거	
제6장 생명의 떡 되신 예수	p.52
오병이어 / 생명의 떡 / 참된 믿음	
제7장 초막절과 성령의 약속	p.71
예수님의 정체 / 생수의 강 / 성령의 예고	
제8장 진리와 자유. 세상의 빛	p.82
세상의 빛 / 진리가 주는 자유 / 참된 증거	
제9장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p.89
영적 시각 / 믿음의 고백 / 참된 깨달음	
제10장 선한 목자와 양	p.91
목자와 양의 관계 / 생명을 주는 목자 / 영원한 보호	

제11장 나사로의 부활	p.102
죽음과 생명 / 믿음의 시험 / 하나님의 영광	
제12장 십자가를 향한 길	p.107
향유 사건 / 영광의 선언 / 죽음의 예고	
제13장 섬김과 사랑의 계명	p.110
발 씻김 / 제자의 삶 / 사랑의 계명	
제14장 길과 진리와 생명	p.118
아버지께로 가는 길 / 보혜사의 약속 / 위로의 말씀	
제15장 참 포도나무와 열매	p.125
연합의 삶 / 열매 맺는 신앙 / 사랑 안에 거함	
제16장 성령의 역사와 승리	p.132
보혜사의 사역 / 환난과 기쁨 / 세상을 이김	
제17장 겿세마네의 기도	p.140
사역을 위한 기도 / 제자를 위한 기도 / 교회를 위한 기도	
제18장 체포와 베드로의 부인	p.149
겿세마네 이후 / 체포 / 세 번의 부인	
제19장 십자가와 구속의 완성	p.151
빌라도의 재판 / 십자가 / 다 이루었다	
제20장 부활과 믿음의 시작	p.155
빈 무덤 / 나타나심 / 믿음의 본질	
제21장 사명의 회복과 완성	p.166
갈릴리에서의 부르심 / 베드로의 회복 / 목자의 사명	

# 『요한복음』

## 1.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Ιωάννης)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였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변화산 사건과 겿세마네 동산, 십자가 현장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으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말년에는 에베소에서 사역하였다.

요한복음은 이 사도의 신앙적 증언이자, 오랜 묵상과 체험이 응축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 2. 기록 연대와 배경

요한복음은 A.D. 80-90년경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태·마가·누가복음보다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로, 이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승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후의 복음서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요한복음이 사건의 단순한 재서술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요한은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기보다, 그 사건 속에 담긴 영적 깊이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

## 3.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20:31)

요한복음은 역사 기록을 넘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증언의 책이다.

이 복음서는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중심 개념은 “믿음”과 “생명”이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적 사건이다.

## 4. 중심 주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복음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그분의 존재를 선포하는 구절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신 ‘말씀’(λόγος)으로 증언한다.

요한복음은 연대기적 전개보다는 존재론적 선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

## 5. 공간복음과의 구별

마태·마가·누가복음은 흔히 “공간복음”이라 불린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술하며, 갈릴리 사역과 제자도의 실천을 강조한다.

반면 요한복음은 사건의 외적 전개보다 그 내적 의미에 초점을 둔다.

공간복음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주목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낸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실천이 두드러진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과 생명, 빛과 진리, 사랑과 연합의 주제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라 할 수 있다.

## 6. 표적의 의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σημείον)이라 부른다.

이는 사건 그 자체의 놀라움보다, 그 사건이 가리키는 계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맹인의 치유, 나사로의 부활 등은 모두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빛이시고 부활임을 드러내는 신학적 선언으로 기능한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메시지를 담은 사건이며, 그 목적은 언제나 믿음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 7. 요한복음의 신학적 성격

요한복음은 깊은 내적 영성과 교리적 구조를 지닌 복음서이다.

성육신, 영생, 성령의 사역, 하나님과의 연합 등 신학의 핵심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복음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독자를 말씀 앞에 세우며,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도록 초청한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권의 복음서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에 참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 분류한다면, 요한복음의 내적인 영성을 통하여(조직신학), 공간복음의 외적인 행위로(실천신학)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록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 < 제 1 장 >

**요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으로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고 존재의 근원인 영원으로 시작하고 있다.

‘태초’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그분의 본질을 밝히는 선언이다.

예수님은 창조 이후에 등장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피조물의 종교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주의 주권적 사역이다.

### 1. “태초” ((~~ἄρχη~~ 레쉬트 / ἀρχὴ 아르케)

성경은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태초’(~~ἄρχη~~ 레쉬트) : 첫째. 처음. **Beginning**. 시작.

막연한 과거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작하신 역사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즉 ‘레쉬트’는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과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시작점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뜻을 품으셨고, 그 뜻이 때가 되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나타내시고, 해와 달을 두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뜻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 ‘실현’의 출발점이 ‘레쉬트’이다.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엔 아르케 엔 오 로고스)

‘말씀’(λόγος 로고스)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태초”를 다시 사용하면서 창조의 시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미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육신의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인간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구속 사건이다.

**창1:1**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레쉬트)하셨다면, **요1:1**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아르케)하신 것이다.

“태초”(ἀρχή 아르케) : 태초. 시작. Beginning. 원인.

요한복음의 ‘태초’(ἀρχή)는 창세기의 ‘레쉬트’(רֵשֶׁת)와 연결되면서도 그 의미가 더 확장된다.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케’는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창조와 구속 역사의 ‘출발점’(starting point)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시작은 반드시 ‘끝’(τέλος 텔로스)을 향하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끝’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이다.

‘레쉬트’는 우연한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그 끝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ἀρχή)과 마침(τέλος)이라>**

‘아르케’는 단순한 시간의 출발이 아니라, ‘끝’(τέλος)인 완성을 염두에 둔 시작이다.

**창1:1** ‘레쉬트’와 다른 것은, ‘아르케’는 시작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아르케’의 시작은 창세기의 ‘레쉬트’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 43:19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 ‘새 일’은 **창1:1**의 ‘창조의 시작’(레쉬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새로운 시작’(아르케)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시작하신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친히 구원자로 오셨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시작’인 ‘아르케’(ἀρχή)이다.

**<계 21:2-3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에덴’(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 나라)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태초’(ἀρχή)는 창조의 시작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구속 역사의 출발점이다.

## 2. “말씀” (λόγος 로고스)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λόγος)는 말, 교훈,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이성적 원리로서 말씀이나 계시를 의미하며, 또한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는 원리를 뜻한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나 교훈이 아니라, 그것은 존재이며 능력이요,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로고스’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말과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말씀이며, 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운행되며, 로고스를 통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로고스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뜻이 표현된 창조적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로고스’(λόγος)와 ‘레마’(ῥήμα)이다.

<창 1:2 ‘아마르 엘로힘 하야 오르’(빛이 있어야.) - ‘하야 오르’(빛이 생겼다)>

<히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레마)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레마’(ῥήμα)는 선포된 말씀이다.

‘로고스’(λόγος)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계획, 진리라면, ‘레마’(ῥήμα)는 선포되어 그 뜻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뜻한다.

<롬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로고스’는 읽고 끝나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듣고’(ἀκούω 아쿠오) 순종해야 할 살아 있는 말씀이다.

같은 로고스라도, 어느 순간 내 영혼에 불처럼 다가와 나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있다.

그것이 ‘레마’(ῥήμα)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로고스’(λόγος) 안에는 이미 ‘레마’(ῥήμα)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뜻과 능력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말씀’(로고스)으로 표현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요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를 이루셨으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바로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 3. “계셨고”(ἦν. 엔)

여기서 ‘ἦν’(엔)은 헬라어 동사 ‘εἶμι’(나는 ~이다)의 과거형이다.

그러나 이 과거형은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계속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요한은 이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의 ‘선재성’, 즉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אלהים 엘로힘)’을 뜻하며, 더나가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로고스)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즉 요한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ζωή. 조에)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 ‘조에’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서 창조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살아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φῶς. 포스)이다.

이 “빛”(φῶς. 포스. אור. 오르)은 창1:3에서 나타남으로 우주는 운행되기 시작했다.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다. 히브리어 ‘오르’(אור)는 단순한 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드러내고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세기의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빛 자체이심을 선언하신 것이다.

태양과 달과 별은 빛을 내는 ‘발광체’(ἄστρ 마오르)일 뿐이다.

그것들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 역사를 운행하는 권세, 그 중심에 바로 ‘빛’이 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권세’(ἐξουσία, 엑수시아) 안에서 이 빛은 역사한다.

‘엑수시아’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통치권과 주권적 권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빛은 단순히 밝히는 빛이 아니라 창조와 생명과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다. 우주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곧 ‘빛’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단순히 살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가운데 살아가며 삶의 길을 인도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는 표현에서 ‘비치다’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빛이 과거에 한 번 비추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어느 시대에도 중단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자신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여기서 “깨닫다”(καταλαμβάνω 카탈람바노)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붙잡지 못하다’, ‘받아들이지 않다’, ‘지배하지 못하다’, ‘억누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붙잡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즉 빛은 항상 비추고 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 <요3:19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가?>

### 1. 메시아에 대한 무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구원자. 가난을 끝내고 풍요를 가져다줄 경제적 구원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울 민족적 지도자인 ‘메시아’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영적 구원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여겼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판단하였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 2.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심 때문이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난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율법의 근본 뜻을 깨닫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위선과 죄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성육신에 대한 무지였다.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는,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광의 왕을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들은 능력과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타나셨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속의 어린양이었다.

빛은 이미 세상에 비추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고정된 신앙관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이다.

빛은 이미 세상에 비추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고정된 신앙관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에 있다.

빛을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지만, 빛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요 1: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께로부터”(παρά, 파라)는 ‘곁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라는 의미이다.

“보내심을 받은”(ἀποστέλλω, 아포스텔로)은 ‘ἀπό’(~로부터)+‘στέλλω’(보내다) 의 합성어로, 확고한 지시를 받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파송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례요한은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 속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막1:2**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이었다.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때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사도 바울 또한 **<롬1:1**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κλητός ἀπόστολος /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는 자신의 직무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바울에 대해 **<행9:15**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ἐκλογή, 에클로게)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선택하여 세운 것을 의미하며,

“그릇”(σκεῦος, 스키투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용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택하여 보낸 사역자였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 선택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다.

- Abraham : 민족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명.
- Isaac : 국가의 근본인 백성을 위한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사명.
- Jacob : 이스라엘 기초적인 12지파를 형성.
- Joseph :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위한 사명.
- Moses : 출애굽과 율법으로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사명.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윗, 12 사도와 바울.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보내신 사역자들이다.

## <사도 (ἀπόστολος, 아포스톨로스)>

“사도”(ἀπόστολος)는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보낸 자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이며 파송자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다.

즉 사도의 직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보낸 자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보냄을 받은 사명자에게는 보낸 자의 권위가 부여되며,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특사라고 할 수 있다.

대사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만, 특사는 보낸 자의 뜻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도 사도는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한 자의 대리인”으로 이해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요17:3 하나님이 보내신 자(ἀπόστολος)>라고 하셨다.

따라서 12사도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었다.

가롯 유다 역시 처음에는 이 사명 안에 포함된 사람이었다. (요13장 참조)

## 요 1:13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께로부터 난 자”(ἐκ γεννάω 에크 겐나오) : ~로부터 태어난 자.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단순한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존재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단순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존재하는 자이다.

성경에서 “보냄”은 단순한 파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존재적 사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보냄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특별히 택하여 세워 사명의 중심에 두시고, 어떤 이는 역사와 상황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할을 맡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크 겐나오”(ἐκ γεννάω)로 표현되는 자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며, 그들을 각기 필요한 자리와 목적에 맞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

## 13절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낸 자들...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역이 맡겨진다.

아론은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 세워졌고, 사사들은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도자들이었으며,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사역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구속사의 중심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서 쓰임 받은 자들이다.

<삿6:14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에서, “보내다”(נָחַח 살라흐)는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예비된 자를 상황 속에서 사용하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은 택한 자들뿐 아니라 택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

요셉 시대의 바로 왕, 모세 시대의 바로 왕, 앗수르와 바벨론, 바사 제국들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심지어 가롯 유다까지도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한 도구뿐 아니라 어둠의 세력까지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롬1:6-7 ‘부르심’(κλητοσ 클레토스)은 특정한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

**요 1:7-11**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

“증거”(μαρτυρια 마르튀리아)는 법정 용어로서, 재판정에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하는 공식적 증언을 의미한다.

증인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개인의 해석이나 주장보다 사실에 대한 진실된 전달에 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따라서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한 빛이 아니라 “참 빛”(the true light)이라고 선언한다.

“참”(ἀληθινόν)은 단순히 거짓이 아닌 의미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실재를 의미한다.

이 빛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는 구원의 범위가 민족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다.

그러나 피조 세계는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어둠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드러낸다.

### <자기(ἑδία 이디아)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ἑδία)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영역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은 낯선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세계,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영적 무지와 죄에서 비롯된 거절이었다.

###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ἐξουσία 엑수시아)는 단순한 자격이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리, 통치적 권세,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어떤 지위를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권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거나 노력으로 얻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신분적 권한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권한을 의미한다.

자녀는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로서 상속권을 가진 존재이다.

성경에서 자녀라는 개념은 단순한 존재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분을 의미한다.

이 권세는 인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셨으니”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위로부터 수여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요한복음은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한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이다. 먼저 “영접하는 자”(λαμβάνω 람바노)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감정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붙들다, 받아들이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기 삶의 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결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이며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믿는 자**”(πιστεύω 피스튜오)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탁하며 그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요한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사명을 나타낸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영접과 믿음은 서로 다른 두 행위가 아니라 같은 신앙의 두 측면이다.

영접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단이며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신뢰이다.

※ **13절**의 사람들에게는 **12절**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하여 보낸 자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길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요3:16**)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구원적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와 주권에 따라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요3:18**).

※ **1:6절**에서 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12절**의 조건들이 주어졌다 할 수 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 자들이지만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응답과 순종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며, 그 순종 속에서 구원의 관계 역시 완성된다.

※ **엡 1:13** 구원의 복음을 듣고~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 7:1-3** 인침을 받은 자들.

이 인침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나 종교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표를 의미한다.

“**인침심**”(σφραγιζω 스프라기조) : 인정하다. 확증하다. 소유로 삼다.

성경에서의 인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령의 인침심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로 인정하시고 구원의 관계 안에 두셨다는 법적·언약적 선언이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말한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심**”이며, 이러한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3:16)

“**믿음**”(πίστις 피스티스, Faith) :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으로 신뢰한다고 해서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가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신다.

즉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신뢰이다.

#### Q. 한번 인침심을 받으면 영원한가?

성경은 성령의 인침심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엡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침심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보존되는 은혜의 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신앙에서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고를 준다.

<히6: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타락**”(παράπιπτο 파라피토)은 ‘παρά’(곁에서) + ‘πιπτω’(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로 옳은 길에서 벗어나 떨어지는 것, 즉 바른길에서 떠나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리에서 돌아서는 상태를 말한다.

성경에서 최초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타락**’은 단순한 인간적 약함이나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타락한 자는 왜 용서를 받을 수 없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죄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태를 ‘타락’이라고 말한다.

“모독”(βλασφημέω 블라스페메오) : 비방하다, 고의적으로 대적하다.  
 단순한 무지에서 나오는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행위.  
 <막3: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어리석음으로 훼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하여 마귀의 신앙처럼 전하거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거짓 선지자, 이단 등)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실제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Incarnation”(성육신)은 예수님께서 본질이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의미이다.

“육신”(σάρξ 사르크스)은 단순히 육체라는 의미를 넘어 몸을 가진 인간으로, 곧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인간의 실존을 가리킨다.

“몸”(σῶμα 소마)이 인간의 물리적 몸을 가리킨다면, “육신”(σάρξ)은 인간의 존재 전체, 곧  
 인간의 생명과 삶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몸”(σῶμα)이 ‘혼’의 지배를 받듯이 ‘육신’과 ‘몸’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σκηνώω ἐν ἡμῖν 스케노오 엔 헤민).

“거하시매”(σκηνώω)는 장막을 치다, 장막 가운데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구약의 성막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 위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다. 그때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다.

요한은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말한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로 된 성막이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안에”(ἐν)는 단순한 공간적 의미만을 가진 전치사가 아니라 함께, 관계 속에서, 가운데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하나님이 단지 인간 세계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임재란 단순히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인간을 품고 함께 거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성막이며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한 빛이나 광채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계시를 의미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에 임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나타내는 표였다.

이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독생자’(μονογενής 모노게네스)는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오직 하나뿐인 분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영광은 단순히 위대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서로 분리된 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타내는 표현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출34:6)으로 계시하셨다. 요한은 그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창조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이제 그 동일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인간에게 직접 나타내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이며 하나님 자신이 인간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실제적 사건이다.

“Incarnation”(성육신) : 예수님께서 본질이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의미이다.

“육신”(σάρξ, 사르쿠스)은 ‘몸’을 가진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몸”(σῶμα, 소마)이 ‘혼’의 지배를 받듯이, ‘육신’과 ‘몸’은 분리되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며, 영원하신 로고스인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매” (σκηνοῶ ἐν ἐγῶ 스키토포 엔 에고).

“거하시매” : 장막을 치다. 장막 안에 머무르다. “안에” : ~와 함께. 우리(에고) : 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임하였듯이, 이제 그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다.

“안에”(ἐν)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함께”라는 관계적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품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장막이시며, 지성소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단순한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계시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서 말하는 ‘독생자’(μονογενής, 모노게네스)는 단 하나뿐인 유일한 분을 의미하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한다.

**요 1:18**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μονογενής θεός 모노게네스 데오스).

“독생자”(μονογενής υἱός 모노게네스 휘오스) : 단 하나의 유일한 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다.

여기서 ‘μονο’ (모노)는 ‘하나,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γενής’ (게네스)는 본질과 관계된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μονογενής’는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을 의미한다.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라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εἰς τὸν κόλπον τοῦ πατρὸς)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까운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친밀성과 본질적 연합을 의미한다.

‘품속’이라는 표현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일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의미이다.

“**요10:30**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 역시 단순한 목적의 일치나 사역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일치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 1-2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πρὸς 프로스)는 단순히 곁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관계, 즉 인격적 교제와 깊은 친밀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계셨다’(ἦν 엔)는 과거의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영원한 존재 상태를 강조하는 동사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증거한다면, 요한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선지자나 메시아적 지도자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 곧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 요 1:19-34 세례요한이 구약 말씀과 함께 “예수 = 그리스도 =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함.

세례요한의 사역은 단순히 한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기다려 온 메시아의 도래를 확인하는 증언의 사역이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은 단순한 예언적 외침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선언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나타났고(**창22장**),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으며(**출12장**),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사53:7)으로 예언하였다.

세례요한의 이 선언은 바로 그 모든 예표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은 단순히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넘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속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희생 제물이시다. 세례요한은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하였다.(요1:32-33)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 요 1:35-51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단순한 인간적 만남이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부르심이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먼저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안드레는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였다. 이는 제자의 부르심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증거와 만남을 통하여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준다.

시몬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다.

‘게바’(Κηφᾶς)는 아람어로 ‘반석’을 의미하며 헬라어로는 ‘베드로’(Πέτρος)라 불린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사명을 규정하시는 선언이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성격과 장차 그가 감당하게 될 역할을 알고 계셨으며,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 이어서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말씀과 증거를 통해 준비된 마음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그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

따라서 제자의 부르심은 인간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며, 준비된 자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 <제자 (μαθητής 마데테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단순히 몇 사람을 세우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구체적인 역사 속 인물에게 전달되는 순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셨고, 이제 그 장막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 부른다.

“제자”(μαθητής,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를 의미하며 특정한 교사나 학파 혹은 종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제자란 단순한 소속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따르는 존재를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주로 12사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누가와 요한은 이 표현을 더 넓게 사용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였다(눅6:13, 요1:35-50).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며 믿음과 순종 안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반적인 제자와 구속사적 사명을 받은 제자를 구분하여 말한다.

특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12사도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한 추종자와 구속사적 사명을 위임받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 <눅 6:13 그 제자를 부르시어 그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먼저 ‘제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열둘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즉 제자 가운데서 특별한 선택을 통해 사도가 세워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하신 제자들은 12사도들이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들이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여러 자료와 전언을 통해 사건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표현보다 ‘사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약 37회).

이는 초대교회가 사도적 증언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자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무리”(ὄχλος 오클로스)이다. 이는 군중,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가 제자는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제자라 부를 수 있다.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성경에서 “사도”(ἀπόστολος)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어 부르신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구속사적 직분이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사도(바울)로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명을 맡았다.

사도직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으로서 역사 속에서 완성되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와 동일한 권위와 계시적 기초를 가진 존재는 성경적 의미에서 존재할 수 없다. 사도적 사명이라는 의미로 사역적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의미의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사도”라는 개념은 성경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사도는 교회의 터를 놓는 기초였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가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 위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며, 그 기초 위에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다.

## -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

<계 1:8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Αλφα)는 헬라어 첫 글자이며, ‘오메가’(Ω)는 24번째 마지막 글자이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시작과 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시간의 끝 이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전체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단순히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의미한다.

<계 21:6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의 하나님’-

“이루었도다”(γινομαι 기노마이)는 생겨나다, 이루어지다, 존재하다, 완성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단순한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 되었음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타락 이후 구속의 역사를 거쳐 마침내 완성에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처음’(ἀρχή 아르케)은 단순한 시간적 시작이 아니라 어떤 일이 시작되는 근원과 출발점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신다.

‘마지막’(τέλος 텔로스)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 졌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을 여셨을 뿐 아니라 그 역사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심으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또한 “생명수 샘물”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며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지는 선물임을 나타낸다.

<계 22:12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심판의 하나님’-

여기에서 “처음”(πρῶτος 프로토스)과 “마지막”(ἔσχατος 에스카토스)은 시간의 순서를 강조 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처음이 되시며 동시에 마지막이 되신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출발점이시며 동시에 역사의 최종적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면 “시작”(ἀρχή 아르케)과 “마침”(τέλος 텔로스)은 시간적 순서보다 목적론적 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은 목적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완성이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그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성육신으로 시작된 구원의 경륜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선언은 단순히 시간의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에서 시작하여 구속을 거쳐 심판과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포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구속을 지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뜻이 드러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심판과 완성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구속-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이며 그 모든 시작과 완성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결국 한 가지 중심 진리를 증거한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구속주이시다.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으로 나타났고 결국 완성으로 나아간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고 마침내 완전한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단순한 복음서의 서론이 아니라 창조에서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는 장이다.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

## < 제 2 장 >

### 요 2:1-11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표적”(σημεῖον, 세메이온)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목적과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초점이 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은 단지 잔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계시적 행위였으며, 이것이 표적의 본질이다. 요한은 이 사건의 결론을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11절)라고 기록함으로써 표적의 목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표적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어 믿음으로 이끌고 결국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통로이다.

### 요 2:3-4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γυνή, 귀네)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존칭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낮추어 부르신 표현이 아니라 혈연적 관계를 넘어 메시아 사역의 차원에서 부르신 호칭이다.

이는 이제 사역의 기준이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속 계획에 있음을 드러낸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거절의 의미라기보다 사역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밝히시는 표현이다. “내 때”(ἡρα, 호라)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이고 구속사적인 시점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현실적 필요를 보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사역이 드러날 때를 바라보고 계셨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연결되며, 모든 표적은 그 “때”를 향해 나아가는 계시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사역하신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 요 2:5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의 뜻과 능력을 신뢰하였다. 여기서 순종은 이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요 2:6-7**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였다.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옛 정결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됨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율법의 정결은 외적인 씻음에 머물렀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은 내적 변화와 생명의 변화로 나아간다.

“아귀까지 채우라” 하신 것은 기적의 과정에서 인간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완전한 준비를 의미한다. 이 과정을 지켜본 자들은 하인들과 제자들이었으며 특히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목도한 증인으로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잔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제자들의 믿음>

① ‘πιστις’(피스티스, 명사)는 믿음(Faith), 곧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존재적 신뢰, 곧 하나님이며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πιστεύω’(피스튜오, 동사)는 믿다(Believe)라는 뜻으로 마음에 있는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완전한 신뢰에 이른 단계라기보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초기적 믿음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계시를 통해 시작된 믿음이며 이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점차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단순한 감동이나 이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완성된다.

### <기적의 순서>

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명령은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였고,

② 하인들이 물을 채운 것은 순종이었으며,

③ 갖다주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옮긴 것은 행함이었고

④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표적은 드러나지 않으며,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만, 그 표적은 인간의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고 연회장에 가져다준 하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요 2:13-22 첫 번째 성전정화

성경에는 성전정화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며, 두 번째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공생애 말기에 무화과나무 사건과 함께 나타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시기와 메시지에서 구속사적 의미의 차이를 가진다.

### <성전 정화의 차이점>

**첫 번째**, 성전 정화는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상행위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인간의 이익과 종교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책망하신 것이며,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예배가 인간 중심의 종교 체계로 왜곡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질책이다. 이는 단순한 성전의 정화가 아니라 기존 유대 종교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며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이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물리적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정 건물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성전 정화는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난 종말론적 선언의 성격을 가진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셨다.

첫 번째 정화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신 표현과 연결하여 보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심을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구약의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성전 중심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고 새로운 차원의 예배로 전환된다.

따라서 성전 정화 사건의 신학적 의미는 단순한 정화 사건을 넘어 옛 언약의 종결과 새 언약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선언하는 데 있다.

**요 2:17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거룩한 감정이나 열정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의 본질과 그 결과를 함께 드러내는 선언이다.

여기서 ‘열심’(ζήλος, 젤로스)은 단순한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적인 헌신과 집중된 사명 의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열심은 동시에 왜곡된 종교 체제와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종교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으며, 그들의 열심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왜곡된 열심이었다.

예수님의 성전 회복은 바로 이 거짓된 종교적 열심과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돌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점차 대적과 핍박으로 이어져 결국 십자가에 이르는 길로 진행될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소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을 바로 세우려는 메시아의 사명이 거짓된 종교 체제 속에서 소모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며 시69편의 고난받는 의인의 말씀과 연결되어 이해된다.

**요 2:23-25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생긴 일시적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적 고백이나 순간적인 감동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믿음과 참된 신뢰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보고 생기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적 믿음이다.

**<요한복음 2장>**

표적과 성전 정화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이 드러나는 장이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시작이며, 성전 정화는 왜곡된 종교를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또한 사람들의 믿음이 표적에 근거한 일시적 반응에 머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으로서 참된 믿음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이 장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약에서 “테라스” 16회 (기적: 1회 / 기사: 15회).

“세메이온” 77회 (표적: 69회 / 이적: 8회)

1. 기적 / 기사(τέρας 테라스. Miracle) : 놀라운 일. 불가사한 일.

-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는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현상.
- 신들로부터 오는 표징을 의미.
- 본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한다.
- 성도들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한다.

2. 이적(異蹟)

-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3. 표적(σημειον 세메이온 sign. Target)

-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현상을 말한다.
- 표적은 기적과 이적을 실현하는 자의 신분과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뜻하는 바를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다.
-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이다.
- 표적이란 기적을 일으킨 목적의 본질을 말한다.
- 표적의 본질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어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표적 = 목표물(Target) = 구원 = 하나님 나라)

(표적: 마태 6. 마가 4. 누가 5. 요한 17. 행전 12. 고전·후 3. 살후 1. 히브 1. 계 1 = 50회)

(기사/기적: 마태 1. 마가 1. 요한 1. 행전 9. 로마서 1. 고후 1. 히브 1. 살후 1 = 16회)

## < 제 3 장 >

**요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רַבִּי)는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칭이며, ‘선생’(διδάσκαλος, 디다스칼로스)은 교사, 가르치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말하였는데, 이는 그의 신앙적 고백이라기보다 표적을 본 후 자기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행하시던 일과 같은 범주로 이해하였고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교사로 인식하였으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써는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시대에서도 많은 이적들이 사역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표적의 의미보다 그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에 대한 현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요 3:3** ~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ἀνωθεν γεννάω, 아노덴 겐나오)는 ‘다시’라는 의미를 넘어 ‘위로부터 나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중생의 사건이다.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 세상의 지배 아래 있으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옮겨지게 된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처럼 거듭남은 인간의 본질이 바뀌는 사건이며 생각과 의지와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영적 전환을 의미한다.

**요 3:5**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인식의 차원을 말한다면, **5절**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 참여의 차원을 의미한다. 즉 거듭남은 단순한 이해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속하게 되는 조건이다.

“**물과 성령**”은 외적 표징과 내적 변화를 함께 나타내는 표현으로 물은 정결과 회개를, 성령은 생명과 새 창조를 의미한다.

거듭남은 인간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며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영에 속한 상태로 옮겨지는 사건이다.

거듭남의 대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 역시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구원의 조건이다.

###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는 옛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징으로서 세상에 속하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다. 이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순종의 표현이다.

예수님의 세례가 공적 사역의 시작을 드러낸 사건이듯이 우리의 물세례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다.

“성령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이 입증되는 사건으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영적 현실을 의미한다.

‘성령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 삶의 열매로 그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거듭남은 단순한 교리적 이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존재가 새로워지는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의미하고 그 결과는 순종과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중생의 본질이며 참된 믿음의 길이다.

**요 3:8** 바람( $\piνεῦμα$ )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piνεῦμα$ )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과 ‘성령’은 동일한 단어( $\piνεῦμα$  퓨누마)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비유로 들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신다.

바람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지 인간이 완전히 알 수 없으나, 그 소리와 움직임의 흔적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또한 그 기원과 방식과 범위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 결과와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의 논리나 종교적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며, 동시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된 삶과 순종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적 변화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드러나는 영역을 동시에 가지며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된다.

**요 3:16-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선언이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그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으나, 아담의 죄로 그 질서가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는 상실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οὕτως)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단지 사랑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구속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멀리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멸망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며 영생은 단순히 미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며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창조 목적의 완성에 참여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드러낸다.

#### ※ “**믿음**” (πιστεύω, 피스튜오. Believe)

- **πιστός**(피스토스. Trust)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 곧 의지할 수 있는 확실성을 의미하며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신뢰의 성격을 가진다.
- **πίστις**(피스티스. Faith)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서 마음의 중심에서 형성되는 믿음을 뜻한다.
- **πιστεύω**(피스튜오. Believe)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을 맡기고 그에 따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뢰’(πίστις)를 기초로 자신을 맡기고 맡긴 대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행위적 순종을 포함하는 전인적 반응이다.

참된 믿음은 마음의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결단으로 이어지며, 신뢰와 순종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나타나는 열매이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구원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 “**믿는 자**”(πιστευῶν ὁ, 피스튜온 호)

단회적 과거의 결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상태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지속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순간적 고백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지속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계시와 권능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완성된다.

이 순종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권능을 믿고 따르는 삶이 보여 주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다.

**요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κρίνω, 크리노)은 단순히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다’, ‘판단하여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구원과 반대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심판은 감정적인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따른 구별이며,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결정적 선언이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심판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시작된 실재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써(**요3:19**) 스스로 빛을 거부하는 그 순간 이미 심판의 방향은 정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장차 받을 형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선택이며, 그 선택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실 최종적 심판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정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드러내시고 그 상태를 그대로 확정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빛을 거부하는 선택 자체가 이미 심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심판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함하는 사건으로서 지금의 선택이 영원의 결과로 이어진다.

##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됨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요10:26)라고 하시고,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10:27)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부르심과 응답이 구별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존재하며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며 믿음은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다.

그러므로 ‘택함’은 인간의 자량이 될 수 없고 또한 책임을 면하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참된 택함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른다.

결국 마지막 심판은 단순한 선택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빛 가운데 거하였는가 어둠 가운데 머물렀는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믿음은 그 삶으로 증명된다.

## <두 종류의 사람>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3:15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되는 구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틀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혈통의 구분이 아니라 영적 소속의 구분, 곧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에 속한 자의 구별이다.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승리하게 될 구속의 계열을 의미하며, ‘뱀의 후손’은 죄와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의 흐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빛과 어둠, 구속과 대적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구속사적 역사이며, 모든 사람은 그 가운데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약속의 계열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 요 3:19-20 누가 정죄를 받는 자인가?

정죄를 받는 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이며,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이다.

요한복음에서 정죄는 행위 이전에 관계의 문제이며,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과 권세와 자기 뜻을 앞세우며 그리스도의 계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 곧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정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정죄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결과로서 확정되는 상태이며, 이는 현재적 선택이 궁극적인 심판으로 이어지는 영적 원리를 보여준다.

### 1. 죄 (ἁμαρτία,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본래 ‘표적을 빗나가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존재적 상태를 의미하며,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죄로 강조된다.

구약에서의 ‘죄’(חַטָּאת 아온)는 왜곡과 비뚤어짐을 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죄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죄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를 본질로 한다.

### 2. 허물 (παράπτωμα, 파랍토우마)

‘파라프토마’는 ‘곁으로 떨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로 진리와 의의 길에서 벗어난 잘못을 가리킨다. 이는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잘못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죄가 목표를 빗나간 상태를 강조한다면 허물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탈과 넘어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은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되지 않으며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탈을 포함한다.

### 3. 회개 (μετάνοια,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다’는 뜻으로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변화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뜻한다.

참된 회개는 인간의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용서’(ἀφιημι 아피에미)는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선언이다.

**요 3:22-36**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이 선포.

**31-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노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근원이 하늘에 있으며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한다. 땅에 속한 자는 제한된 인식과 경험 안에서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받는 자”(λαμβάνω 람바노)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붙잡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의 증언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붙드는 결단을 뜻한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입증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 신뢰와 순종을 포함하는 전인적 반응이며, 순종하지 않는 상태는 결국 믿지 않는 상태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영생은 단지 미래에 주어질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들을 믿고 따르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진노 또한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는 영적 현실을 의미한다.

### <요한복음 3장>

거듭남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밝히며, 인간의 이해와 종교적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본질을 드러낸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존재의 변화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필수적 조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나타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며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빛을 거부함으로 심판 아래 머물게 된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며,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나타나는 삶만이 영생에 참여하게 됨을 선언한다. 이 장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 준다.

## < 제 4 장 >

### 요 4:1-2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신 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나 상황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이루어진 사역의 진행이었다.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신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동시에 4절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이는 구속사적 필요에 따른 필연적인 행하심이었다.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졌으며, 사마리아를 향한 여정 또한 특정한 사람과 영혼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역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며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 요 4:2-6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과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남은 우연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은 계획 속에서 준비된 만남이었다.

이 만남은 단지 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 그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25절)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을로 돌아가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39-42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찾아오심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여인의 증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적 응답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응답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작용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의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육체적 갈증의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요청이었다.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를 통하여 영적 필요를 드러내셨으며, 그 여인의 내면 깊은 영적 요구를 채워 주시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이 요청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 요구는 우리의 결핍을 드러내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방식이다.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필요를 출발점으로 삼으시되, 그 필요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 본질로 인도하신다.

#### 요 4:7-42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20-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시적 선언으로 이어진다. 여인은 예배의 장소 문제를 제기하며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오랜 종교적 갈등을 드러낸다. 사마리아인들은 계시의 일부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예배 역시 제한된 인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며 계시의 근원과 구속사의 흐름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음을 밝히신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유대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준을 장소나 전통에서 본질로 옮기는 데 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선언은 성전 중심의 제한된 예배가 종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지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중심의 예배를 가리키며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형식적·장소적 예배를 넘어서는 선언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특정 장소나 형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이다.

##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은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의미하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하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참된 예배는 형식적 행위나 감정적 표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진리의 계시 안에서 드러지는 삶 전체의 헌신이다.

**<롬 12: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이다>**

이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심령과 삶 전체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 <예배의 본질>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수고와 고통과 질병,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는 자신의 존재와 고통을 궁극적으로 말길 대상이 없었고, 탄식은 있으나 응답을 들을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 열어 두신 은혜의 통로이다.

하나님의 아담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으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격을 잃었다. 이후 후손들이 번성하였으나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었기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자리이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수단이며 절차이다.

## <예배의 개념>

“예배”(προσκυνέω, 프로스퀴네오)는 ‘~를 향하여 엎드려 입 맞추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경외와 복종을 포함하는 전인적 반응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특정한 의식으로 이해하지만, 장소와 형식은 예배의 외적 틀일 뿐이며, 예배의 본질은 그 안에 담긴 관계와 경배의 대상에 있다. 참된 예배는 공간이나 형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방향 전환이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삶의 태도이다.

## 요 4:43-54 예수님 두 번째 표적

**48-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표적 중심 신앙을 지적하시며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신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단순히 기적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며 돌아갔고, 이는 표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믿는 단계로 나아간 믿음이었다. 그 결과 아들의 치유가 확인되었고 그 경험은 개인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온 집안이 믿게 되는 공동체적 믿음으로 확장되었다.

이 사건은 믿음이 표적을 통해 시작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마 8:8~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신뢰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큰 믿음(10절)이라 칭하셨다.

여기서 ‘믿음’(πίστις)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그 신뢰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붙드는 신뢰에서 출발하며, 그 신뢰는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

### <치유의 신학적 의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자의 치유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는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메시아적 표적이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내시는 구원자이시며, 치유는 그 나라의 도래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계시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치유는 육체적 회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징이며, 인간의 전 존재가 회복되어야 할 상태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 <믿음과 간구의 관계>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왔고, 간구하였으며, 말씀을 신뢰하고 돌아갔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결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치유는 인간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은 그 역사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응답으로 나타난다.

왕의 신하 경우에도 치유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표적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공동체적 고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치유의 궁극적 목적은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소경 바디메오와 혈루병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에서, “구원하다”(σώζω 소조)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전인적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회복되는 구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을 넘어 죄와 단절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이며 그 신뢰는 육체적 회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으로 완성된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치료와 치유>

### 1. ‘치료’ (θεραπεία, 데라페이아)

병이나 상처와 같은 육체적 문제를 고치기 위한 행위로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주로 의학적·육체적 차원의 회복을 가리킨다.

### 2. ‘치유’ (ἰάομαι, 이아오마이 / ἰατρῆ, 라파)

단순히 증상을 고치는 것을 넘어 병이 나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육체적 회복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영적·내면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회복을 뜻한다.

그러므로 치료가 외적 회복에 머문다면 치유는 존재 전체의 회복을 포함하며, 치료와 치유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 치유 안에 치료가 포함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원> (σωτηρία 소테리아. Salvation/ σόζω 소조. Save)

성경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는 차원을 넘어 파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주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소조’(σόζω)는 육체적 치유와 생명의 보존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는 영적 구원을 포괄하는 표현이며, ‘소테리아’(σωτηρία)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육체적 회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이며, 그 표적은 결국 영적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

육체적 구원은 표적이 될 수 있으나, 영적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역이다.

**<요3:17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사용된 ‘구원’(소조)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소테리아)으로 이어지는 표징이 된다.

(삼복음서에 나타난 ‘구원’의 대부분은 ‘소조’(치유)이며,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원’의 대부분은 ‘소테리아’를 위한 ‘소조’이다.)

###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는 병이 낫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관계가 회복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열 나병환자 중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였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말씀처럼, 참된 치유는 육체적 회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치료가 몸의 회복이라면 완전한 치유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으며, 치유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관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 <치유의 목적>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은 단지 육신의 고통을 덜어 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회복된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회복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완성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를 넘어 참된 ‘구원’인 ‘소테리아’(σωτηρι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이다.

###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한계를 넘어 직접 찾아오시고, 그 만남을 통해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방식을 보여준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예배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시고, 생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신다. 또한 왕의 신하의 사건에서는 표적을 넘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시며, 그 믿음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됨을 나타낸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통해 다가오시되 그 목적을 생명과 참된 예배로 이끄시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구원의 사역을 분명히 드러낸다.

## < 제 5 장 >

**요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일부 고대 사본에는 3절 후반의 “물의 움직임”과 4절의 천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NIV, NRSV 등 현대 번역본에서도 이 구절은 생략되어 있다. 이는 후대 필사 과정에서 삽입된 설명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문 해석 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다”는 전통적 이해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민간적 신앙이나 전승을 반영한 기록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1. 연못의 특징

-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
- 그러나 계속 요동치지 아니하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요동칠 때 들어가야 한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기대하던 장소였으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믿어졌다. 중요한 점은 그 움직임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간헐적이었던 것이다. 즉, 항상 열려 있는 은혜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경쟁적 구조였다.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혜택을 받는 체계였다. 이는 은혜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2. 연못의 상태

① **5:3** “물의 움직임”(κίνησις 키네시스) : 물이 고여 있거나 잔잔히 흐르는 상태를 의미하며,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정체된 상태를 나타낸다.

② **5:4** “물의 움직임”(ταράσσοψ 타랏소) : 고여 있던 물이 요동하는 상태로, 외부적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함께 휘젓는 것.

요한복음의 신학적 초점은 물의 성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데 있다.

### 3. 병든 사람들

“병”(ἀσθενέω 아스데네오)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힘이 없는’, ‘무능한’,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생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총체적인 고난과 환난을 포함한다.

이는 육체적 질병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① 소경(τυφλός 튀플로스) :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드러낸다.
- ② 절름발이(χλός 콜로스) :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온전한 방향을 갖지 못하는 자로, 삶의 중심이 분열된 상태를 나타낸다.
- ③ 혈기 마른 자(ξηλός 크세로스) : 심령이 메마르고 생명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로, 신앙이 형식만 남고 실체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 ④ 38년된 병자 : 장기간 지속된 무력함과 절망의 상태로,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한계를 상징한다.

### 4. 병자들의 특징

그들은 모두 누워 있었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수동적 상태를 의미하며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들은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기다림은 능동적 믿음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수동적 기대에 가까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다. 은혜는 인간이 조건을 갖추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베데스다의 구조가 ‘먼저 들어가는 자’의 은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이다.

이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한 장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 자리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 자리이다. 우리는 각자의 문제와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보이지 않는 고통과 결핍을 지닌 채 은혜를 기다리는 병자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특정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ἐξουσία)를 성령의 ‘능력’(δύναμις) 안에서 드러내어야 하며, 정체된 심령이 깨어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타랏소>의 영적 의미이다.

“타랏소”(ταράσσω)는 단순한 감정적 고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여 정체된 상태를 흔들어 깨우는 영적 각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요동’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령충만은 어떤 순간적인 체험이나 특정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내어 드리는 삶의 상태이며, ‘가끔’(κατὰ καιρὸς) 임하는 사건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지속적 동행이다.

“요동친 후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μετὰ) 살아가며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에 합당하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자신을 드릴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 <하나님의 능력>

“**엡 1:19. 6:10**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 ‘힘’(ἰσχύς 이스퀴스 Power)

하나님의 본질적 능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내적 힘이며, 생명체 안에 주어진 근원적 에너지와 잠재력을 포함한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지적 능력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적 힘이다.

### - ‘위력’ / ‘능력’(κράτος 크라토스 Ability)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으로서 주어진 힘이 실제로 행사되는 권세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스퀴스)과 권세가 실제로 드러나고 작용하는 통치적 능력이다.

### - ‘능력’(δύναμις 뉘나미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드러나는 능력으로, 실제 삶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힘이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 - ‘힘의 위력’(κράτους τῆς ἰσχύος 크라토스 테스 이스퀴스)

하나님의 내재적 힘(이스퀴스)이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크라토스)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절대적 능력이다.

- ‘강건하여지고’(ἐνδυναμοῦσθε 엔뒤나무스데)

수동적 의미로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강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 ‘키네시스’(κίνησις)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스퀴스)과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크라토스)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아직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성령의 ‘뒤나미스’를 통하여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준비된 영적 상태이다.

- ‘타랏소’(τάρρασις)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키네시스)이 성령의 역사로 실제 가운데 나타나 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드러나는 영적 깨어남과 능력의 실현이다.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키네시스)을 성령님께서 함께 나타내 주시는 힘. (power).

※ ‘힘’(이스퀴스)과 ‘위력’(크리토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이라면, ‘타랏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 ‘능력’(ἐνδυναμοῦντι 엔뒤나모운티) : 외부로부터 힘을 부여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상태.
- ‘안에서’(ἐν 엔) : 함께,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 ‘할 수 있다’(ἰσχύω 이스퀴오) : 부여된 능력으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상태. 그 힘이 삶 속에서 실행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함께 역사하신다는 의미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으며, 그 권능은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드러난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 있는 능력이다.

**요 5:5-18 38년된 병자 치유하심과 논쟁**

**5절**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 왜 예수님은 38년된 병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는가?**

본문은 많은 병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다가갔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은혜이며, 동시에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됨을 드러낸다.

**5:6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보셨다”(εἶδεν 에이덴) :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그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신 것을 의미한다.

“오래된 줄”(ὄτι 호티) :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그 상태의 원인과 배경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시고”(γινώσκω 기노스코) :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상태를 간파하여 아는 것.

예수님은 단순히 오래 병들었기 때문에 그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14절** 죄 때문), 또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7절** 내가 못에 가는 동안에)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은혜의 주권성을 보여 준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병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와 내면의 상태를 묻는 말이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체념과 무력감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간이며, 예수님은 그가 여전히 회복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것이다.

물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무력감과 동시에 낫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함께 드러나 있다. 이 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단순히 오래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없을 뿐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공허히 여기신 것이다

<공허한 자 : 하나님의 공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향한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공허함을 베푸신다>

## 5:14 ~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병 사이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개인적 경고이다.

어떤 질병은 죄와 직접 관련될 수 있지만,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일반화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 이후의 삶까지 포함하는 경고이며, 치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 병의 재발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로 돌아가는 영적 타락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치유는 육체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병은 치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며, 영적 무관심과 침체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요구된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 <죄와 허물> 제3장 참조.

#### - ‘죄’ (ἁμαρτία 하마르티아. ʕ17 아온)

‘하마르티아’는 본래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죄로 강조된다(요16:9).

따라서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상태이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여도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삶까지 포함하는 관계적 이탈을 의미한다.

#### - ‘허물’(παράπτωμα 파랍토우마. ʕ25 페샤)

‘파라프토마’는 “걸로 떨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히브리어 ‘페샤’는 고의적 반역과 거역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허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기는 적극적 불순종을 포함한다.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에는 차이가 있다.

두 개념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죄’(불신)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허물’(불순종)은 삶의 영역에서 징계와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환난과 질병을 특정 허물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난을 개인의 죄나 허물로 단순화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결국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으며,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믿음의 관점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네가 낮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준비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 응답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회복과 심판의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은 순종 속에서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지만, 그 역사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속한다.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순종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키네시스’처럼 정체된 상태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회복과 능력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참된 ‘타랏소’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체된 삶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실제적인 영적 변화이다.

이 변화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으며, 그 뜻을 구하고 기도로 묻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엡6:10) 강건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일시적인 감동이나 체험이 아니라, 성령과의 지속적인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 **요 5:19-29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심.**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다.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은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 속에서 동일한 본질과 권위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곧 예수님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으로서 동일한 사역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

특히 21, 25, 28절에서 반복되는 “죽은 자들”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포함한다. “25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이미 시작된 현재적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육체적 부활까지 포함하는 종말론적 선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생명으로 옮겨지며, 마지막 날에는 그 생명이 완전한 부활로 드러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재적 생명이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ἀγαθὰ ποιήσαντες)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의미한다. 곧 ‘선’은 행위 이전에 관계에서 시작되며,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된다.

반대로 ‘악한 일’(φᾶῦλα ποιήσαντες)은 단순한 윤리적 악행을 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는 불신의 상태를 포함한다.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에서 믿음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불신은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궁극적 기준은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다.

따라서 ‘생명의 부활’은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생명에 참여한 자가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심판의 부활’은 이미 구원을 거부한 상태가 마지막 날에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이미 생명 안에 거하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활은 새로운 상태를 형성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날이다.

**요 5:30-47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냄**

**<39-40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증거를 통하여 밝히셨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곧 표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로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적 표징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성경 자체가 자신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오라는 초청이며 동시에 그 거부에 대한 책망이다.

### <누구에게 ‘타랏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성령의 능력은 임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속에서 나타난다.

#### <벧전4:11 ~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ἰσχύς 이스퀴스)으로 하라>

이는 인간의 자질이나 재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되는 것이다.

이 <타랏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내시는 능력이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능력이며,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 <요한복음 5장>

인간의 무력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드러낸다. 베데스다의 사건은 외적 조건이나 기회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핵심은 ‘타랏소’이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δύναμις)이 임할 때 정체된 삶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영적 각성이다. 참된 변화는 외부의 요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데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앙은 기다림이 아니라 동행이며, 수동적 기대가 아니라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타랏소’의 삶이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며, 생명은 현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

## < 제 6 장 >

### 요 6:1-15 오병이어 (마14:13-21 막6:33-44 눅9:10-17)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유일한 기적 사건이다(예수님의 부활 제외).

이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한 긍휼하심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증거케 하시려는 표적의 하나였다.

요한이 사용하는 “표적”(σημεῖον)은 단순한 “기적”(δύναμις,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가리키는 계시적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배고픔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였다. 복음서에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라 한 것으로 보아 여자와 아이 합하여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인구 계수 방식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많은 무리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고도 남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은,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메시아적 계시이다.

### 요 6:5-6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시험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아시고”(ἤδεις 에이데이. οἶδα 오이다의 과거형)는 단순한 정보적 앎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포함한 완전한 인식을 뜻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아심”은 신적 통찰과 연결되며(요2:24-25), 우연한 판단이 아니라 주권적 계획 속의 행동임을 드러낸다.

‘요5:6 38년 병자를 보시고’(εἶδω 에이도) / ‘막6:48 풍랑 당함을 보시고’(εἶδω 에이도)에서의 ‘εἶδω’(에이도)는 단순한 시각적 관찰이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 포함된 인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형편을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πειράζω. 페이라조)은 시련하다. 시험. ~을 증명하기 위해 Test 하는 것.

하나님의 시험은 파괴가 아니라 연단의 목적을 가지며(약1:2-3 참조),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검증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보고 계시며, 생각, 행동, 삶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것은 감시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 돌보심의 의미이다.

예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다.

**요6:6**의 “아시고”라는 표현이 바로 그 신적 예비하심을 뒷받침한다.

우리 사역에도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는 인간의 무책임을 허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섭리를 신뢰하라는 요청이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선택과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군중을 먹이실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다.

**<마6:31-33**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아시느니라”(οἶδεν 오이덴)는 현재형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아심을 의미한다.

또한 “먼저”(πρῶτον 프로톤)는 시간 순서보다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더하시리라”(προστεθήσεται 프로스테데세타이)는 수동태로 하나님이 공급의 주체이심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번영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중심에 두라는 요청이다.

이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풍성함은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충분함을 의미한다.

빌립에 대한 ‘시험’(Test)은 영적인 신앙에 대해 하신 것이었다. 그는 먼저 계산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빌립과 같이 순간순간 이러한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

이것은 나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사용코자 하심이니,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시험은 실패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요 6:7-9** 빌립이 예수님 말씀에 먼저 한 것은 ‘셈’이었고, 안드레는 상황 파악이었다.

‘데나리온’(δηνάριον) : 4.3g 로마의 은화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마20:2)

빌립은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하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δηνάριον)을 기준으로 약 8개월의 임금을 계산하였다. 그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계산의 정확성에 있지 않고, 계산의 전제에 있었다. 그의 계산에는 인간의 자원만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문제의 크기를 보았으나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반면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덧붙였다. 안드레 역시 한계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를 자기 안에 붙들어 두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왔다. 그의 행위는 완전한 믿음의 선언은 아니었으나, 최소한 자원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였다.

요한은 이 대비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 요 6:14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처럼 저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지자’로 알았던 것이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신18:15](#) 말씀하신 ‘선지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그 선지자”(ὁ προφήτης. 호 프로페테스)는 단순한 예언자를 뜻하는 인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

([신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단순한 후계 예언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권위와 중보적 역할을 가진 인물을 가리킨다.

유대 전통 속에서 이 말씀은 종말론적 인물, 곧 메시아적 선지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요 6:16-21 물 위로 걸어오시어 풍랑을 잔잔케 하심. (마14:22-33 막6:45-52)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보냈는데, 새벽녘에 심한 풍랑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물 위로 걸어오시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어 제자들을 구원한 것에 대한 말씀이다.

요한은 이 사건을 간결하게 기록하지만, 공관복음과 함께 보면 제자들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권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1.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줄 어떻게 아시고 물 위로 걸어 오셨는가?

예수님은 밤 사경(새벽3-6시)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다. 당시 유대 시간 구분에서 밤은 네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사경은 가장 어둡고 피로가 극에 달하는 시간대이다. 이때 예수님이 계신 곳과 배와의 거리는 약 **3mile**(약 25~30 스타디온)나 떨어져 있었고, 새벽 어두운 시간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위급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기에 제자들이 위급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셨던 것이다.([막6:48](#))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심’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와 동행의 의미를 가진다.([시121편 참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마28:20**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 임재를 의미한다.

## 2.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당한 이유?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의 이유로 겪는 고난이 있다.

① 나의 잘못으로 받는 하나님의 징계 ②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③ 사탄의 유혹과 참소

‘징계’는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며 이 징계를 통하여 참 신앙을 갖도록 하며,

‘연단’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가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 주는 고난이며,

‘시험’은 연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를, 쓰임 받을 자격이 되는 가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릇이 되는 가를 가름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바치는 것인데,

사탄은 신자를 죄로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도록 하여,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참소’이다.(계21:10)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분별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 고난들을 통해 연단하시며,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본문에 제자들이 풍랑의 고난을 겪은 것도 시험이며 연단이었다.

<마 14:32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였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수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다.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체험한 후에야 그 고백이 더 분명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아시고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실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아심”은 계획 없는 대응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권적 인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으로 이끌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요 6:22-25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찾았다.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와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록한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기대를 품은 적극적인 추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순수한 신앙적 갈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유익에 대한 기대였다.

**요 6:26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그들이 기적 자체는 보았으나, 그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는 보지 못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보다”(ὄραω)는 단순한 시각적 인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차원을 포함한다.

그들은 떡이 많아진 현상은 보았으나, 그 떡이 가리키는 메시아적 계시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인 것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냄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는데, 그 무리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니라 “표적”(σημεῖον)이라 부르며, 그 표적은 언제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향성을 가진다.

그들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에게 나아온 것이 아니라, 표적의 결과물에 머물러 있었다.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이지,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시대 무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신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우리는 이미 표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신앙이 구원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 충족을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믿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상황이 어려울 때만 작동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멈추는 것이라면, 우리는 떡을 구하는 무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표적을 넘어 표적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표적> (σημεῖον 세메이온)

“σημεῖον”(세메이온)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뜻하는 “기적”(δύναμις 뉘나미스)과 다르다.

‘δύναμις’가 능력 자체를 강조한다면, ‘σημεῖον’은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표식’(sign)이라는 뜻을 가진다. 표적은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적 의미의 본질을 말한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요2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요4장),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요5장), ‘오병이어’(요6장), ‘물 위를 걸으신 사건’(요6장), ‘맹인을 치유한 사건’(요9장),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요11장)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하는 표적이었다.

따라서 표적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로이다.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이며,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표적이 멈추는 지점은 놀라움이지만, 표적이 완성되는 지점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표적은 감탄을 일으키는 현상이 아니라, 신뢰를 일으키는 계시이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표적은 구원의 문이 된다. 따라서 표적은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목이며, 계시를 통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다.

만일 사람이 표적에서 멈춘다면, 그는 사건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는다면, 그 표적은 참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적은 현상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계시이다.

그 방향성은 언제나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 곧 구원으로 향한다.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20:31)

**요 6: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이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배를 채우는 떡이었으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말씀하신다.

- “인자”(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호 휘오스 투 안트로푸)라는 표현은 메시아적 칭호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양식은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다.

- “**썩을 양식**”(ἀπολλύμι βρώσις. 아폴뤼미 브로시스) : 멸망시키는 양식. 영생의 반대.

‘ἀπολλύμι’는 ‘멸망하다, 파괴되다’.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질 것을 가리킨다.

‘βρώσις’는 먹는 것, 음식이다. 따라서 “**썩을 양식**”은 단순히 부패하는 음식만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라질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세상적인 양식**” : 자신의 욕망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우상숭배. 탐심. 명예. 권력. 부귀)

- “**영생하는 양식**”(αἰώνιος ζωὴ βρώσις. 아이오니오스 조에 브로시스)

‘αἰώνιος’는 단순히 ‘끝이 없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뜻한다.

“**ζωή**”(조에)는 반복되는 핵심 단어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 생명을 의미한다.

-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식**’: (말씀. 기도.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러한 요소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통로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양식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시다.(요6:35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얻으려면 너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 이 필요한 것들은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줄 것이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βρῶσιν μένουσα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있는**”(μένω, 메노)은 ‘머무르다, 지속하다’는 뜻으로, 썩어 없어질 양식과 달리 영원히 남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되어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생의 실체이시며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것이다.

여기서 “**일**”(ἔργον, 에르곤)은 인간이 공로를 쌓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일**”(ἔργον 에르곤)은 무엇을 더하는 노동이 아니라,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의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자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받는 것이며,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준다.

“먼저”(πρῶτον)는 단순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뜻하며,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이 공급의 주체이심을 나타낸다.

우리가 구원을 추구할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금욕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선에 두는 삶이다.

결국 예수님은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질문한 ‘일’(ἔργα. 에라)은 ‘일’(ἔργον 에르곤)의 복수로서 여러 행위를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온 그들의 신앙 전통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work)은 단수이다.

29절에서도 “ἔργον” 단수로 사용하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 ‘일’(work)이란 신앙을 의미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말한 것이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뢰를 포함한다.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자신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자체보다, 그 열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신다.

행위가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믿음 없는 행위는 본질을 잃기 쉽다.

믿음이 없는 수고는 종교적 활동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란 각자에게 명하신 ‘일’, 곧 ‘사명’을 말한다.

이 사명은 단지 외적인 사역이나 직분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포함한다.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 안에서 지속된다. 시작도 믿음이요, 유지도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을 행하는 힘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믿음 자체도 은혜의 선물이다.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은혜가 근원이 되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공로로 쌓아 올리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되는 구원이다.

### **요 6:30**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이 질문은, 그들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으나, 그 기적이 가리키는 분을 보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보다”(θεωρῶν)는 단순한 시각적 인지가 아니라, 계시를 인식하는 영적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다. 즉 눈으로는 보았으나, 믿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준 사건(출16장)을 영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31)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는 말 속에는, 모세의 권위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당시 유대 전통 속에서 모세는 만나를 통해 백성을 먹인 지도자였고, 종말에 또 다른 모세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였다. 그들은 신명기 18장에 약속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한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만나와 비교하며 더 확실한 증명을 요구하였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였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였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증명이 먼저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 자신이 곧 표적의 실체임을 선언하셨다.

모세가 준 만남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의 수단이었으나, 예수님은 참 하늘의 떡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35절)라는 자기 계시로 응답하셨다.

### **31-36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곧 “내가 표적이다.” 그러니 그 표적인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하시며, 모세가 준 만나와 자신을 대비하신다.

모세는 떡을 주었으나, 그 떡을 먹은 자들은 결국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생에 이르게 하므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양식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다”(ἐγὼ εἰμι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출3:14**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연결되는 계시적 선언이다.

“ἐγὼ εἰμι”는 헬라어 문장 구조상 굳이 주어를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ἐγὼ’를 앞에 두어 강조한 것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언적 표현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신적 자기계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곧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생명’(ζωή)은 육체적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말씀이다.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멸망하니 그 생명의 떡인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요한은 여기서 먹는 행위를 믿음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

먹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자기 안으로 들여와 생명과 결합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믿음도 이와 같다.

## 요 6:37-40 구원의 조건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ὁ δίδωσιν μοι ὁ πατήρ. 호 디도신 모이 호 파테르)라는 표현은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있음을 보여준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오는 자”(ὁ ἐρχόμενος. 호 에르코메노스)라는 말씀은 인간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응답을 포함한다.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고 있다.

**38절** “하늘에서 내려온”(καταβέβηκα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카타베베카 에크 투 우라누)은 예수님의 기원과 권위를 분명히 한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치(ἐν)를 보여준다.

**39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μη ἀπολέσω. 메 아플레소)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궁극적 보존과 완성을 의미한다.

‘ἀπόλλυμι’(아플로미)는 멸망하다, 잃다라는 뜻인데, 이를 부정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안전이 아니라, 종말론적 완성까지 포함하는 보존을 의미한다.

####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보고”(θεωρῶν)는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목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표면적 시각이 아니라, 대상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차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뜻한다.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아보는 영적 통찰이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영생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며,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한 교훈 전달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어떤 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영생의 시작이며, 마지막 날에 부활로 완성된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영생의 구조이다.

####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끌어내다”(ἐλκύω 헬퀴오)는 ‘끌어당기다’, ‘끌어내다’는 뜻을 가진다.

이 단어는 억지로 끌어가는 폭력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 있는 끌어당김을 의미한다.

외적 강요가 아니라, 내면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이다.

같은 단어가 “**요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사용되었다.

여기서 “들리면”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용하여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움직이시고 방향을 전환시키신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해 이끌리어 나온 자이며(부름을 받을 때), 이 은혜는 택한 모든 자에게 미치나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은혜는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며, 부르심은 억압이 아니라 감동이다.

요한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주시는 자”(ὁ δίδωσίν μοι ὁ πατήρ)와 “오는 자”(ὁ ἐρχόμενος)를 나란히 놓고 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시는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헬퀴오’의 은혜를 주신다.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필요한 사역자들을 붙여 주신다. 성경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행8장)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신다. 구원은 개인적 결단이지만, 그 결단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사역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예외는 있지만) 본인이 그 사역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결단과 응답이 요구된다.

**37절 “그가 내게로 올 것이요”**(ἦκω 헤코. ~에게 오다. 결단하다. 도달하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강요된 결과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 가능해진 자발적 응답이다. 하나님은 먼저 끌어당기시고, 인간은 그 은혜에 응답하여 나아온다. 그 나아옴 속에서 영생은 시작되고,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 - 구원의 조건.

### ① 하나님께서 택한 자.(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헬퀴오’의 은혜)

이는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주고 계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낸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44절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먼저 끌어당기심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구원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 ②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자.(37절 내게 온 자)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뢰하고 받아들임이다. “내게 오는 자”는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오다”는 예수께 자신을 맡기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믿음은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결단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끌어당기시지만,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온다.

### ③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40절 믿는 자 - Believe)

요한복음에서 “**믿다**”(πιστεύω)는 현재 분사형으로 자주 사용되며, 이는 지속적 신뢰를 의미한다.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다. “보고 믿는 자마다”에서 “**믿는**”(πιστεύων 피스튜온) 단어는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의 결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다.

#### -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 ① ‘**내쫓지 아니하리라**’ : 어떠한 죄악이나 형편에 있더라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준다.
- ②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 악한 영들의 참소와 유혹에서 종이 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 ③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 개인의 죽음 이후의 구원뿐 아니라, 종말의 부활을 포함한 총체적 구원을 의미한다.(계20:12-15 참조)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날**”(ἔσχατη ἡμέρα)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부활로 완성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구원은 현재적 소유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완성이다.

#### -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

삼 복음서에서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로 “**πιστις**”(피스티스)라는 명사와, 동사형 “**πιστεύω**”(피스튜오, Believe)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명사형 “**πιστις**”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동사형 “**πιστεύω**”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요한이 믿음을 고정된 개념이나 소유물로 설명하기보다, 살아 있는 관계적 행위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πιστεύω)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추상적인 교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이 사용하는 “**믿음**”(Believe)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포함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을 제시한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일 뿐 아니라, 구원을 지속하는 삶의 방식이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순간적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 신뢰이며, 고백이면서 동시에 순종이다. 결국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관계적 신뢰이며, 그 신뢰 안에서 거하며 순종하는 삶이 곧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37-40절 참조)**

예수님이 구원(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다.

**<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일 뿐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심을 드러내신다.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 ‘길’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임을 밝히는 계시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ἐγώ εἰμι) 선언은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며, 구원의 내용이자 구원의 완성이시기 때문이다.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καταβά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은 하늘로부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키며 예수님 존재의 근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수님은 단순한 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로서(요1:3)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 사명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신적 사명이다.

여기서 “떡”(ἄρτος)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요한복음에서 ‘ἄρτος’(아프토스)는 오병이어의 물질적 떡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영적 실체로 전환된다.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자신의 ‘살’(σᾶρξ)과 동일시하신다. 이는 성육신과 십자가를 함께 내포하는 표현이다.

‘말씀’(λόγος)이 육신이 되셨고(요1:14), 그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말씀은 대속적 의미를 포함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ὑπὲρ τῆς τοῦ κόσμου ζωῆς)이라는 표현은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며, 신약에서 대속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암시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세상을 대신한 구속적 희생이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데, 이는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효력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먹는 행위는 외적인 동조가 아니라,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요한은 ‘먹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연합임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것으로서, 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요 6:53**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먹다”(φαγω 파고)와 “마시다”(πινω 피노)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적 행위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충격적인 표현을 통해, 생명이 단지 교훈을 듣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다.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마26:26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죄 사함을 위한 언약적 희생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 사역을 이루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십자가 길’의 동참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동참은 공로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들이 “영생을 가졌고”. “가졌고”(ἔχει 에케이)는 영생이 미래의 약속일 뿐 아니라 현재적 소유임을 나타낸다. 이는 ‘구원받을 자격’을 소유했다는 의미로, 이러한 자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 심판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하다”(μένω 메노)는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는 뜻으로 단순한 일시적 관계가 아니라 지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상태를 가리킨다.

믿음은 외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내적 연합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물고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요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와 같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 연합을 말한다.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먹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속에 머무는 삶을 의미한다.

결국 영생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속에서 시작되며, 그 연합이 지속되는 것이 곧 거함이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거함으로 유지된다.

**요 6: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어렵도다”(σκληρός, 스클레로스)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거칠다’, ‘부담스럽다’, ‘마음에 거슬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감정적 저항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적으로 난해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 것이다.

그들은 떡을 원했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하셨다. 그들은 기적을 원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물질적 공급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문제였다.

문제는 마음의 거부였다. 생명의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다”고 말하며 물러선 것이다.

**요 6:61-62**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려느냐?

“걸림”(σκανδαλιζει)은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육신의 진리는 인간의 기대와 다르기에 걸림이 된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승천을 말씀하시며,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다시 드러내셨다.

이는 단순한 선지자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오가시는 존재임을 계시하는 말씀이다.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ζωοποιου̅ν 조오폰이운)은 생명을 주는 능동적 사역을 뜻한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 육체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적 이해와 노력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명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과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말씀은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생명을 내포한 계시이다.

**요 6:64-65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강조된다.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셨고, 그들의 불신이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영적 상태의 문제임을 밝히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ἐὰν μὴ ἢ δεδομένον)은 수동형으로, 믿음이 인간의 독립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가능함을 나타낸다.

즉, 믿음은 인간의 자발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주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여 인간이 자동으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은혜는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며, 허락은 억압이 아니라 가능케 하심이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지만, 인간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믿지 아니함은 단순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거부이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 하지 않은 것이다. 불신은 무지가 아니라 저항이며, 깨닫지 못함이 아니라 따르지 않으려는 결단이다.

예수님은 이 불신을 단순한 오해로 보지 않으시고, 영적 거부로 받아들이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며, 그 응답 안에서 믿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허락을 거부하는 책임 또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요 6:66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요한복음 6장의 분기점이다. 표적을 보고 따르던 무리와,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는 제자들이 분명하게 대비된다. 표적은 그들을 모이게 하였으나, 말씀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기적은 환호를 일으켰지만, 진리는 결단을 요구하였다.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들은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두었던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외적 동행은 있었으나, 말씀 앞에서의 내적 순종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떠남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이탈이었다.

생명의 떡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은 떡의 기적은 원했으나, 떡이신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급은 원했으나,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표적 중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갈라지는 순간이며,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 요 6: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강요가 아니다.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신다. 억지로 남게 하지 않으시며, 조건을 완화하지도 않으신다. 참된 믿음은 강제되지 않는다. 사랑도, 믿음도 자유 속에서만 진실하다.

예수님은 무리를 붙들기 위해 말씀을 낮추지 않으시고, 떠나는 자들을 설득하여 되돌려 세우지도 않으셨고, 대신 진리를 제시하시고, 선택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 믿음은 분위기에 의해 유지되는 집단 심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다. 떠나는 자들은 표적이 끝나자 떠났고, 남는 자들은 말씀 때문에 남았다.

남은 자는 말씀 때문에 남았다.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씀하신 분을 신뢰했기에 떠나지 않았다.

### 요 6:68-6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핵심을 요약한다. 많은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베드로는 남는 자의 신앙을 대표하여 말한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충성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다.

“영생의 말씀”(ῥήματα ζωῆς αἰωνίου. 레마타 조에스 아이오니우)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여기서 ‘ῥήματα’는 단순한 정보나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살아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을 제공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살리는 말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말한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께 있으니,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이다.

요한은 여기서 ‘λόγος’(로고스. 본질적 말씀)가 아닌, ‘ῥήμα’(레마. 실제로 일어날 구체적 말씀)를 사용하고 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πεπιστεύκαμεν καὶ ἐγνώκαμεν)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이미 믿었고 그 믿음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과거의 일회적 결단이 아니라, 현재까지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회적 감정이 아니라, 확정된 신뢰이다. 감정이 사라져도, 이해가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고백이다.

**요 6:70-71** 가롯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 (13장 가롯 유다 참조)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ἐξ ἀρχῆς)는 단순한 시간적 시작이 아니라, 사건의 근원적 차원을 포함한다.

‘ἀρχή’(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근원, 기원, 통치의 원리’라는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ἐξ ἀρχῆς’는 단순히 어떤 시점의 초기가 아니라, 그 사건의 근본적 출발점과 관련된 표현이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우연히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셨다.

이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십자가 사건이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우연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유다의 배신 역시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마26:24**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유다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의 매개체로 이미 예정하여 택한 자였다.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다. 욥기의 사건처럼 사탄은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 허락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은 악의 행위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70절** 유다의 정체 :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는 단순히 사탄 그 자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셨다.

많은 이들이 표적 때문에 따랐으나, 말씀 앞에서 갈라졌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아니라, 인자께서 주시는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많은 제자가 떠났으나, 남은 자들은 이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분명했기 때문에 남았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고백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이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기적의 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표적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생명을 남긴다.

## < 제 7 장 >

**요 7:5-6**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함”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ὁ καιρὸς ὁ ἐμὸς, 호 카이로스 호 에모스)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ὁ καιρὸς”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결정적 시점을 의미한다. 관사가 반복된 표현은 그 “때”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정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기대나 강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계획된 때에 따라 행동하신다. 사람들의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에 행동하신다. 이것이 모든 사역의 기준이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ὁ καιρὸς ὁ ἐμὸς)와 형제들의 “때”를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때는 정하신 시점이지만, 형제들의 때는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 시간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작정하신 시점에 따라 행하신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다려야 할 ‘카이로스’가 없고,음을 암시한다. ‘크로노스’(χρόνος)의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형제들은 “지금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선언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크로노스’의 흐름이 아니라, ‘카이로스’에 의해 행하여 진다.

인간은 흐르는 시간(크로노스)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점에(카이로스) 맞추어 행하신다.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반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이와 같이 시간의 기준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진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누구의 때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신앙은 ‘크로노스’의 조급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분별 속에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역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때’와 ‘시간’의 구분>

성경은 ‘시간’을 단순한 흐름으로 보지 않고, 의미와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 - “제만”(ἡμέρα, 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정된 시점으로,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구속사적 시간이다.

초림과 십자가, 재림과 종말과 같은 사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제만’은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된 시점을 의미한다.

### - “에트”(ἔτος, 때)

준비와 과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성되어 가는 시간이다.

‘제만’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기간이며, 인간의 훈련과 성숙의 시간이 포함된다.

(ex. 예수님의 30년의 준비 기간, 개인의 소명과 훈련의 시간)

### - “호라”(ὥρα,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결정적 순간으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는 구속의 사건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이다.

“**요7:6**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때”(호라)가 아직 안 되었음을 말한다.

## <두 종류의 시간>

### - “καιρός”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결정적 순간이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성취되는 순간이며, 인간에게는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인간이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한

주권적 시점으로, 인간은 이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오직 분별하고 응답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카이로스’는 단순히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에 대한 시간이다.

### - “χρόνος” (크로노스)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측정할 수 있고 반복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흐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가 찾아오며, 그 만남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인간은 흐르는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한 점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완성을 향하여 일하신다. ‘크로노스’의 진행과 ‘카이로스’의 개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준비의 시간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결단의 순간을 놓쳐서도 안 된다.

‘카이로스’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영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트 카이로스” : 사명을 받고 준비하며 나가는 때.(신학+훈련)

“제만 카이로스” : 준비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할 때.(안수 받고 사역할 때)

“카타 카이로스” :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타내는 특정한 시점.

**요 7:6**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6절** “내 때”(ὁ καιρός ὁ ἐμός)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의 결정적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시점을 가리키며, 이는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정해진 ‘제만 카이로스’이다.

이 “때”는 단순한 일정이나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결정적 시점이며,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호라”(ὥρα)와 연결된다.

**8절** “내 때”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리키지만, 아직 그 성취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준비와 진행의 과정, 곧 ‘에트의 카이로스’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절정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으나, 인간의 요구나 기대에 의해 그 시점을 앞당기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6절**과 **8절**의 “내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다만 그 총만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6절** “너희 때”는 형제들이 살아가는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이다.

인간의 시간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작정된 시점에 따라 드러난다. 그러므로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누구의 때인가’에 달려 있다.

**6.8절 “아직”**(οἷπω, 우포)은 단순한 시간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십자가의 “호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때가 충만해지기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공백이 아니라, 섭리 안에서 준비되고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다.

**6절 “준비”**(πληρώω, 플레로오)는 단순히 채워진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진 분량에 도달하여 완전히 성취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정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사역은 준비와 성숙과 충만의 과정을 거쳐 드러난다.

결국 이 충만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이 “호라”(ῥα)이다.

요한복음에서 “호라”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십자가는 실패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완전히 성취된 ‘호라’이며, 구원의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결정적 시점이다.

## 요 7:10-21 명절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의 논쟁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은밀히 명절에 올라가셨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점에 따른 것이었다.

‘명절 중간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14절),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15절)

이 말은 단순한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의 내용보다 그 권위의 근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16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적 지식이나 배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에서 비롯된 계시이다.

이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이후(요5:16),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신 선언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19절)고 하신 말씀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형성된 살해 의도를 드러내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부인하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들 안에 이미 그 계획이 진행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내면에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였다.

###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서 “뜻”(θέλημα, 델레마)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명령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려는 내적 방향성을 포함한다.

###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여기서 “영광”(δόξα, 독사)은 단순한 명예나 평판이 아니라, 존재의 권위를 드러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가, 18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자기중심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대비 속에서 참된 자와 거짓된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 요 7:22-23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에 대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에 있어,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에 비유하며...

“율법으로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왜곡한 그들의 형식적 신앙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시행되었으면서,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은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외형만을 붙들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 곧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뜻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윤리와 도덕, 혹은 인간의 기준을 앞세워 신앙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외형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쉽게 정죄하는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κατ’ ὄψιν 카트 옵신)는 보이는 겉모습에 따른 판단을 의미하며,

“공의롭게”(δικαίαν 디카이안)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따른 판단을 뜻한다.

“판단”(κρίσις 크리스시스)은 분별과 평가의 의미를 가지지만,

“정죄”(κατάκριμα 카타크리마)는 최종적인 유죄 선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권면”(παρακαλέω 파라칼레오)은 격려하고 세워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판단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기준 없는 판단, 곧 외형과 자기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금하신 것이다.

참된 판단은 말씀의 기준에 따른 분별이며,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권면할 수 있으나, 정죄할 수는 없다.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이며, 인간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결국 신앙의 태도는 분명하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권면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판단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의 그릇된 판단으로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잘못이나 허물이 보일 때는, 먼저 그 허물이 무엇인지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한 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상대를 위해 기도하거나 권면해야 한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른 분별이어야 한다.>

**요 7:28-36**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며, 머지않아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심.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에게서 났고”(παρ’ αὐτοῦ εἶμι, 파르 아우투 에이미)는 단순히 태어남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그로부터 존재한다”는 뜻으로, 예수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εἶμι’(에이미)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동사로서, 역사적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를 드러낸다. 또한 ‘παρ’(파라. 곁에서)는 단순한 출처를 넘어서 근원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원을 둔 존재, 곧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분이심을 나타낸다.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ἀπέστειλέν με)에서 ‘보냄’은 요한복음의 핵심 개념으로, 단순한 사명 수행을 넘어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7:30-31**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ἔρα)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한 상황적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의 의도나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붙잡으려 했으나 붙잡지 못했고, 죽이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나 비극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호라”(ῥα)의 성취이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드러난 결정적 시점이며, 구속이 실현되는 절정의 때이다.

**7:33-34**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을 암시하신다. “돌아가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사명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한 후 다시 하나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 “돌아감”은 패배가 아니라 구속의 완성이다.

“조금 더 있다가”(ἔτι χρόνον μικρόν)는 십자가를 향해 남아 있는 시간을 가리키며, 이는 단순한 시간적 예고가 아니라, 구속사의 절정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말씀은 단순한 공간적 부재가 아니라, 영적 단절을 의미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지 않다.

“찾다”는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갈망을 포함하는 표현이지만, 그들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였기에 참된 만남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역을 가리킨다. 이는 하늘이라는 공간 개념을 넘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구원의 자리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리적 이동으로 이해하여, 예수님이 헬라인 가운데 흠어진 자들에게 가려 하는가를 묻는다.

예수님은 영적 차원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땅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계시는 주어졌으나, 믿음이 없을 때 그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요 7:37**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행사와 관련하여 “영적 생수”에 비유해서 하신 설교이다.

**<출17: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초막절 기간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에 붓는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출17:6)을 기념하는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전통적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한 예언적 상징이었다.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실 것을 예언하였고, 초막절의 물 붓는 의식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것은, 그 상징이 더 이상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자기 계시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친 반석은 생수를 공급하는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반석의 실체이시다. 광야의 물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였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다. 따라서 이 선언은 절기 속에서 이루어진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나다”라는 메시아적 선포이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결정적인 계시이다.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는 자**”(ὁ πιστεύων. 호 피스튜온)는 단회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믿고 신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인격적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관계적 상태이다.

“**그 배**”(κοιλία)는 단순한 육체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곧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며, 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이는 자리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심령의 깊은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생명은 단지 개인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머물지 않고, 넘쳐 흘러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달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약속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명의 원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해되며, 그 십자가를 통해 구속이 완성되고, 그 이후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표현은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셨으나,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명을 위해 임하시는 형태였다. 이는 외적 임재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 이후, 곧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함께하시는 내주의 형태로 역사하신다.

이는 단순한 능력의 부여가 아니라, 존재 안에 거하시며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와 그에 따른 생명의 흐름이 나타나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 **요 7:40-52**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간 예수님에 대한 논쟁

**40절**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는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라”(ὁ προφήτης)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는 그리스도라” 하였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반박하였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의 정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출처에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였다.

**미가 5:2**의 예언, 곧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실제 출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부분적 지식에 근거한 왜곡된 판단이었다.

###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드러나듯, 예수님의 존재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거부한다.

이는 예수님이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반응이 드러난 것이다.

**45-46절**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권위와 본질적 차이를 인정한 고백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갔으나, 그의 말씀 앞에서 붙들지 못하였다. 이는 외적 권위보다 더 강한, 말씀 자체의 권위가 그들을 압도하였음을 보여 준다. 결국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반응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말씀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고 나누는 기준이 된다.

### 요 7:47-52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니고데모의 변론

**47-49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 무리를 무지한 자로 정죄한다. 그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만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율법은 본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였지만, 그들은 도구에 머물러 실체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 무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종교적 우월감이었다. 이 모습은 오늘의 신앙 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을 갖추며, 교회 전통에 익숙할 수 있으나,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도구에 머물 뿐이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교만의 근거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참된 신앙은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나며, 정죄가 아니라 권면으로 드러난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50-52절** 니고데모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상기시킨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은 정죄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율법은 먼저 듣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논리로 답하지 않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조롱하며 인신공격으로 대응한다. 진리가 도전할 때 교만은 논증이 아니라 공격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니고데모는 아직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인물이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돌아보게 한다.

**첫째**, 우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공의로운 판단은 서두르지 않고, 먼저 듣고 분별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둘째**, 완전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 작은 결단을 통해 자라가기 때문이다.

###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때**”와 인간의 “**판단**”이 교차하는 장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시간 속에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때 안에서 행하신다. 진리는 논쟁을 일으키기보다 사람의 중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표적 앞에서도 머물게 되고, 자기 기준에 머무르면 계시 앞에서도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따라서 신앙은 즉각적인 확증을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며 분별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는 생수의 약속에 이르지만, 자기 기준에 머무는 자는 끝내 논쟁 속에 머물게 된다.

## < 제 8 장 >

### 요 8:1-11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심.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단순한 율법 적용이 아니라, 7장에서 계속된 논쟁의 연장선이었으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는 의도였다.

그들은 율법을 앞세웠지만, 목적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있었다.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될 때,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11절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정죄하다”(κατακρίνω)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유죄를 확정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으나,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드러내신다.(요3:17 참조)

이 여인의 죄는 간음이라는 구체적 허물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행위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용서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은혜임을 나타낸다.

정죄의 핵심은 단순한 행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부와 불신에 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윤리와 도덕에 비추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나 선악에 대한 ‘분별’(διάκρισις)과 ‘정죄’(κατακρίμα)는 구별되어야 한다.

‘분별’은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지만, ‘정죄’는 최종 판결자의 자리에 서서 단정하는 태도이다. 인간은 분별할 수 있으나,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라는 관점은 자칫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윤리의 틀 안에서 선악을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규정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요셉 형제들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속에서는 그 사건들이 구원의 역사 안에 사용되었다.

이는 ‘죄’가 ‘선’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까지도 섭리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넘어 이루어진다.

인간에게는 ‘양심’과 ‘가책’이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συνείδησις)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내적 기준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의식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주어진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가책”(ἐλεγχω)은 드러내고 책망하는 작용이다.

말씀은 외적 규범을 넘어 내면을 비추어 숨겨진 상태를 드러낸다.

율법은 외적 행위를 규정하지만, 말씀은 내면을 비추어 드러낸다.

이 장면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는 자들의 숨은 상태를 드러내고, 죄인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정죄는 사람을 달하게 하지만, 말씀은 양심을 깨워 회복의 자리로 이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을 들고 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로 서야 한다.

### 요 8:12-20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을 증언하심.

앞부분에서 정죄와 은혜를 드러내신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선포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ἐγὼ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여기서 “나는”(ἐγὼ εἰμι)은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연결되는 존재론적 선언이다.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곧 빛이심을 밝히신다.

“세상의 빛”은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계시이다.

초막절의 등불 의식 속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성전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된 빛이심을 드러낸다. 빛은 단순히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는 존재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동시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단순히 밝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이 빛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단순한 방향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실 존재라는 자기 계시이다.

### 20절 “~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때”(ῥα, 호라)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결정적 시점을 의미한다.

빛이 선포될수록 반발은 커지지만, 그 빛은 하나님의 정하신 “호라”를 향해 나아간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절정의 순간이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인간의 판단이나 반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때’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 8:21-28**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심.

**21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선언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며 죽이려 하였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장소적 이동의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라고 오해하였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위’와 ‘아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소속을 가리킨다.

‘위’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며, ‘아래’는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의미한다.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ἐγὼ εἶμι)은 명사가 생략된 절대적 표현으로, 단순한 자기 지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암시하는 선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메시아로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드러내신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행위적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이다. 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죄의 본질이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든다”(ὑψώσῃτε)는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높임을 뜻하는 이중적 표현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수치와 죽음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과 계시의 자리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데 달려 있다.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며, 존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응답이다.

**요 8: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πάντοτε)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전인격적 순종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순간의 헌신이 아니라, 존재와 사역 전반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를 가리킨다.

“기뻐하시는 일”(τὰ ἀρεστὰ αὐτῷ)은 단순히 도덕적 선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뜻(θέλημα)에 합한 사역, 곧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명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순종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가는 완전한 순종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삶이며,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관계 안에 계셨다.

#### <히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언어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그 뜻에 맡기는 전인격적 의탁을 의미한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며,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제적 표현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단순한 확신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은 윤리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ἀλήθεια)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실재를 의미한다.

이는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계시 전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교리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다.(요14:6)

“자유롭게 하리라”(ἐλευθερώω)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며, 이는 단순한 심리적 해방이나 선택의 확대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지배를 끊으시고, 믿는 자를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이며, 이 자유는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 1. 죄에서의 자유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속박 가운데 살아간다.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삶이 제한되고, 양심의 가책과 불안은 내면을 엮매이게 한다. 참된 자유는 죄 사함에서 시작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자유도 온전할 수 없다.

### 2. 건강에서의 자유

육신이 병들면 삶의 활동이 제한되고, 마음도 쉽게 위축된다.

건강은 단순한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결국 영육 모두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3. 물질에서의 자유

물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을 엮매는 요소가 된다.

부족함도 속박이 될 수 있고, 넘침도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다.

참된 자유는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

### 4. 평안에서의 자유

마음의 평안은 인간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가정과 이웃과의 불화는 내면에 지속적인 엮매임을 만든다.

참된 자유는 외적 조건을 넘어, 내면의 평강이 유지되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 네 가지가 일정 부분 충족될 때 사람은 형통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자유의 완성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 근본적인 자유가 요구된다.

### 첫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통과와 문이 된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 둘째,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 <고후3:17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외적 조건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있다.

### <요8:36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는 선택의 확대가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이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자유이다.

## 요 8:37-59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심.

### 1. 혈통과 영적 정체성 (37-41절)

이 단락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영적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 ‘자손’은 혈통적 계승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따르는 영적 계승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결국 혈통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 2. 두 아버지의 대비 (42-47절)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말씀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거부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와 진리를 거부하는 태도는 그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여기서 핵심은 혈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영적 소속은 선언이 아니라 반응으로 드러난다.

### 3.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1절)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는 육체적 죽음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궁극적 죽음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말씀을 지키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실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은 더 이상 최종적인 권세가 되지 못한다.

#### 4.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56절)

아브라함은 약속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린 자였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의 신앙은 존중하면서도, 그 신앙이 가리키는 실체를 거부하는 모순이 드러난다.

#### 5. 절정의 선언 — “ἐγώ εἰμι” (에고 에이미)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ἐγώ εἰμι)”

여기서 “ἐγώ εἰμι”는 단순한 시간적 과거 표현이 아니라,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절대적 존재 선언이다.

예수님은 “나는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속하지 않는 존재, 곧 하나님 자신과 연결된 존재임을 드러내신다.

이 선언은 단순한 메시아 주장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이는 그들이 이 말씀을 신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이 단락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를 믿는 자는 생명에 참여하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단절의 자리에 서게 된다.

<요한복음 8장> 빛과 진리 앞에서 사람의 정체는 드러나는 장이다.

정죄하려는 자들은 율법을 앞세웠으나, 예수님은 은혜로 응답하셨다.

빛이 선포되자 어둠은 물러서기보다 오히려 반발하였고, 진리가 드러나자, 사람들의 중심이 분명히 나뉘었다. 그들은 혈통을 자랑하였으나 말씀을 거부하였고, 아브라함을 말하였으나 그의 믿음과 순종은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진리를 통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생명, 곧 구원이며, 그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만이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된다.

## <제 9 장>

### 1. 고난의 질문과 하나님의 일 (9:1-5)

고난의 질문과 하나님의 일 (9:1-5)

제자들은 소경의 상태를 죄의 결과로 해석하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나타내다”(φανερῶν)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밝히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고 다시 선포하신다.

빛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고 살리는 존재이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일으키는 적극적 능동의 계시이다.

### 2. 치유와 순종 (9:6-12)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다.

이 행위는 단순한 치료 방식이 아니라, 창조와 회복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소경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갔고, 그 순종의 과정에서 보게 되었다. 믿음은 완전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 3. 논쟁의 시작 (9:13-34)

치유가 안식일에 이루어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규정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치유받은 자는 압박과 위협으로, 처음에는 “그 사람”(ἄνθρωπος)이라 하였고, 이어 “선지자”(προφήτης)라고 고백한다.

참된 인식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경험된 진리를 통해 깊어져 간다.

### 4. 출교와 만남 (9:35-38)

결국 치유 받은 자는 회당에서 “출교”(ἄποσυνάγωγος) 당한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와 사회적·영적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단절의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πιστεύω)라고 고백한다.

믿음은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으로 나아갈 때 완성된다.

## 5. 심판의 선언 (9:39-41)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는 자’는 육체의 시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안다고 여기며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자를 가리킨다.

반대로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빛 앞에 자신을 열어 두는 자이다.

문제의 본질은 무지 자체가 아니라,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 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만, 그 빛을 거부하는 순간 생명이 아닌 심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은 단순한 시력 회복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시이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자는 오히려 어둠에 머물고,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참된 시야에 이르게 된다.

### <요한복음 9장>

빛 앞에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드러나는 장이다.

고난은 단순한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빛이 임할 때 회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시작된다.

보게 된 자는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본다고 여긴 자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머문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오는 자는 보게 되지만, 자신을 기준으로 서는 자는 빛 앞에서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된 시력은 눈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 곧 겸손히 반응하는 영적 태도에 달려 있다.

## < 제 10 장 >

### 요 10:1-18 양(Sheep)과 목자(Shepherd)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듣는다”(ἀκούω)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고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포함한 들음이다.

따라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와 순종의 반응이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는 집단적 관리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며, 그 삶과 상태를 아는 관계적 표현이다.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며, 구원이 집단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 부르심임을 드러낸다.

또한 목자는 양을 뒤에서 몰아가지 않고, 앞서가며 인도한다.

이는 동행이며,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어 주는 인도이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καλός)은 도덕적 선을 넘어, 본질적으로 참되고 온전하며 합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 있는 목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참된 목자이신 분이다.

“목숨을 버리다”(τιθῆμι τὴν ψυχὴν)는 우발적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는 자발적 희생을 뜻한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삿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하지만,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

따라서 선한 목자의 본질은 권위나 통제에 있지 않고, 자기희생과 헌신에 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γινώσκω,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관계적 체험을 의미한다.

이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교제와 연합을 포함하는 인식이다.

예수님이 양을 아신다는 것은 그들의 상태와 연약함과 필요를 깊이 아신다는 뜻이며, 양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신뢰와 의탁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종교적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인격적 교제이며, 지식이 아니라 관계, 형식이 아니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는 제자의 길이 세 단계로 나타난다.

“듣는다”(ἀκούω)는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알아듣고 받아들이며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다”(γινώσκω)는 지적 인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따른다”(ἀκολουθεῶ)는 단순히 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목자에게로 전환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감정의 동조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며, 신앙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동행이다.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며, 아는 것은 관계의 깊어짐이고, 따르는 것은 그 관계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음성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삶으로 드러난다.

이 단락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보호를 넘어, 부르심과 관계, 희생과 따름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구조를 보여준다.

### <양의 특징>

양은 시력이 약하여 스스로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눈앞의 것을 따라가기 쉽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

잘 속고, 쉽게 넘어지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다.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쉽게 넘어지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존재이다.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이 죄 가운데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양은 이기적이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귀소본능이 강하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에 보호자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이 점은 양이 본질적으로 의존적 존재임을 말해 준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단순한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며, 쉽게 유혹에 이끌리고, 분별없이 따라가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목자가 필요한 것이다.

목자가 없는 자유는 결국 방향이 되고, 인도자가 없는 선택은 위험이 된다

### <양의 특성>

#### 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는 양에게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른다. 이는 단순한 식별이 아니라 반복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의 결과이다. 음성을 안다는 것은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음성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관계적 확신을 의미한다.

**② 양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신앙은 개인적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보호되고 자라난다. 홀로 떨어진 양은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신앙도 공동체적 돌봄 속에서 지켜진다.

**③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 신뢰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존재를 맡기는 의탁이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안전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움직인다.

신앙 역시 이해를 한 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따르는 것이다.

**④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특성이 있다.**

양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목자의 뒤를 따른다. 이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신앙은 독자적 길을 만들어 가는 자율성의 선언이 아니라, 참된 길을 따르는 선택이다.

**⑤ 양은 떨어지면 울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양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기에 도움을 요청한다. 기도는 영적 위치를 알리는 신호와 같다. 기도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는 표징이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유혹에 약하고, 스스로 지키기 어렵고, 넘어지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 다시 그것들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스스로 이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능한 목자가 필요하다. 그분은 오직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뿐이시다.

구원은 집단적 구조 속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다.

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고, 따름은 그 관계의 증명이다.

목자는 부르시고, 양은 듣고, 알고, 따르는 관계 안에서 생명이 유지된다.

**<먼저 행할 말씀>**

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6:33)

②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마16:24)

③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행1:8)

**요 10: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빼앗다”(αἶρω, 아이로)는 ‘강제로 취하다’, ‘제거하다’, ‘들어 올려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의 생명은 외부의 폭력에 의해 강제로 제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ἐμαυτοῦ) 버리노라 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주체이시다.

“권세”(ἐξουσία, 엑수시아)는 단순한 능력(power)이 아니라 합법적 권한(authority)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가지신 분이시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 사역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구원의 주권은 인간이나 사탄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하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별이 필요하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다르다.

역사는 외부에서 영향을 가하여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시도이며, 지배는 스스로 순종의 방향을 바꾸어 그 권세 아래 들어가 종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빼앗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소속이 드러나는 것이다.

**<롬6:16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 순종은 소속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취하신 분이시며, 돌이켜 오는 자를 다시 붙드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구원은 강제로 붙들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언약적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묻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은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고 다시 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가 돌이켜 그 음성에 응답할 때, 예수님은 다시 취하시는 권세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10:28-29**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ζωὴ αἰώνιος)은 단순히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적 관계 안에 들어간 생명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관한 것이다.

“멸망하지 아니한다”(οὐ μὴ ἀπόλωντα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는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 표현으로,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는 구원이 우연이나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안에 있음을 나타낸다.

“빼앗다”(ἀρπάζω)는 ‘강제로 채간다’, ‘뺏아챈다’는 뜻으로, 외부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신자를 강제로 끊어낼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영생은 누구도 외부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목적은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불변성을 알게 하려 함이다. 참된 신자들은 악한 것으로 둘러싸였고 그들은 연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의뢰한 자가 그날까지 능이 지키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구원은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선언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구원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한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관계적 여정이며, 순종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불드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불드심 안에서 끝까지 따르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

이 구절과 **롬8:35-39**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를 버리신다. (**10:18절** 참조)

그러므로 구원은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이지, 살아가는 동안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1.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다.

**계20:12-15**는 최종 심판을 말하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지금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지지만, 그 완성은 “마지막 날”의 부활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구원은 현재적으로 시작되지만, 종말에 이르러 완전하게 성취된다.

죽은 후 낙원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자격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그 최종적 완성은 재림의 날, 곧 부활과 심판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 2.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계21장**은 구원은 영원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히 6:4-6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기서 “맛보다”(γευσαμένους)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 참여를 의미하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구원의 예정된 자도 타락하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 10:22 내 이름을 인하여 ~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다’(ὑπομείνας)는 지속적 인내를 의미한다.

‘얻으리라’(σωθήσεται 소데세타이)는 ‘σῶζω’(소조)의 미래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뜻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먼저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만이 후일 심판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사는 동안에는 택함을 받았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빌 2:12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라”(κατεργάζεσθε)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 이루어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지만, 믿음과 순종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이미 구원의 확증은 주어졌으나, 그 확증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이다.

구원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순종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요10:28-29**는 구원의 안전성을 말하며, **롬8:35-39**는 그리스도와 의 끊어질 수 없는 구원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히6장**과 **마10:22**는 구원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은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구원은 선언으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른다.

그러므로 신자는 구원을 소유한 자로 살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

## **요 10:22-42** 메시아에 대한 논쟁

**22-23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Ευκαιρία)은 (마카비 혁명)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마카비 혁명은 기원전 2세기경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 강요와 종교 탄압에 맞서 일으킨 유대 민족·신앙 회복 운동. ‘하누카’)

과거의 성전 회복을 기억하는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단순한 장소의 배경이 아니라, 계시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24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확인이라기보다 이미 내린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요구에 가깝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요구한 것이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마음의 문제였다.

**26-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믿음이 소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믿음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택함의 개념이 암시된다. 하나님 양과 하나님 양이 아닌 자가 구분되는 기준은 외적 열심이나 지식이 아니라, 목자와의 관계이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양”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양은 목자에게 속한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말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은, 구원이 단순한 지식이거나 종교적 소속이 아니라, 듣고, 알고, 따르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임을 보여준다.

### **30-36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ἓν)는 남성형이 아니라 중성형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본성의 일치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사명적 일치가 아니라, 존재론적 일치를 선언하는 말씀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메시아 주장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시82:6)는 인용은, 자신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느냐는 논증이다.

결국 이 단락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 곧 참된 메시아, 하나니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 <선한 목자>

(요10:11 나는 선한 목자.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이신가?

### 1. 구원의 목자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 지팡이는 양들이 우리들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갈 때, 지팡이의 고리로 목을 끌고 우리 쪽으로 끌고 올 때 사용한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들을 해치려는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 그 짐승들을 물리치는 무기이다.

그러나 그 막대기로 그 짐승들을 물리치지 못할 때는 몸으로 싸우며, 때론 목동들은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는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면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하였다” 하였듯이, 목자는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떠한 경우라도 양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요10:11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며 악한 사탄의 손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다.

어리석은 양인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난다 해도 목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 부르시며,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끝내 사탄의 울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의 「구원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예수님은 죄악과 사탄의 유혹에서 찢기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까지 보호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도우시고 지키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3:17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셨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천국의 영원한 복락은 사라지고 멸망의 길만 남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아담이 누렸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번성케 하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원의 목자」로 오신 것이다.

## 2. 사랑의 목자.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① 양은 시력이 나쁘다.

양은 시력이 나빠 앞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야만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으며, 푸른 초장의 쉼터에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목자를 잃거나 곁에서 떨어져 버린 양은 사나운 짐승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해 굶주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도 양과 같이 바로 앞을 알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다.

우리 역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또한 어떠한 목자의 뒤를 따르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아니면 악한 사탄을 따르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푸른 초장의 풍요로움과 설만한 물가의 평안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악한 목자인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푸른 목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으로 인도하여 가난과 궁핍과 환난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앞도 못 보아 갈 길을 알지 못해 광야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친히 부르시어 푸른 초장의 쉼터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 ②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요 10:2-4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가노라>

양에게는 각기 이름이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부르면 못 알아듣고, 주인이 부르면 알아듣고 쳐다본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목자의 뒤를 따를 수 있고,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한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어 먹이가 풍성하고 물이 있는 설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믿는다고 내 남편/ 아내/ 자녀/ 형제들을 모두 부르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만이 그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

목동은 자기의 양들에 대하여 어디가 아프고, 무엇을 좋아하고 성격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어야 그 양들을 튼튼하게 길러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므로 그 형편에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으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사화복의 주이시며, 또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므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더라도 우리들을 부르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 3. 평강의 목자.

<시 23:1-2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그냥 양과 함께 있거나 다닐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목자의 의무는 ①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② 건강하게 사육시켜 많은 새끼를 얻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에게는 양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양식(꿀)을 준비해야 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악한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며 굶주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평안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목자는 누구인가? 세상의 권력자/ 부자/ 박사도/ 누구도 아니다.

그들 역시 바로 앞을 못 보는 양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더 앞을 못 보는 양일뿐이다.

그 목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손수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며 안식의 풍성한 삶을 주시는 「평강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1.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목자」.
2. 우리들을 고난과 멸망의 수렁에서 구원하시어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푸른 초장 쉼터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
3. 우리들을 이 땅에서 강건하고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목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아름다운 양들이 되어야 한다.

## < 제 11 장 >

### 요 11:1-45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시이며 동시에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확장시키는 장면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고 “우리의 친구”라 불릴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 안에서 교제하던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 포함된 사건이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으나, 그 믿음은 아직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 신뢰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마리아 역시 같은 고백을 하였으나 현실의 슬픔 앞에서 머뭇거렸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와 교사로는 인식하였으나,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로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나사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계시의 자리였다.

눅10장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διακονία,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택하였고, 마리아는 “좋은 편”(μερίς, 메리스)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이란 단순히 더 나은 선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과 함께 ‘뉘’, ‘분깃’, 곧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적 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두 자매에게 하신 말씀은 행동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은사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두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ἀφαίρεω, 아파이레오)이라 하셨는데, 이는 말씀 안에서 형성된 믿음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섬김은 분주함 속에서 흔들릴 수 있으나, 말씀 안에 앉아 형성된 신뢰는 삶의 중심을 지탱한다.

훗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행동은(요12:3) 단순히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오랜 시간 형성된 깊은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였다.

그러므로 그 헌신은 충동이 아니라 축적된 믿음의 열매였고, 순간적 감동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라난 결단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병들었을 때 곧장 가지 않으시고 죽은 후에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곧장 가지 않으시고 죽은 후에 가신 이유는, “**4절**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사건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는 일이며,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눈앞의 슬픔보다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고, 실제로 나사로 사건 이후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한 도구였으며, 개인의 고난도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은 부활이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실재이며, 생명 또한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믿음의 초점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

또한 무덤 앞에서 드리신 “**41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기도는, 이미 응답을 전제로 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아직 돌이 옮겨지기 전이었으나,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 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나사로 사건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며 믿음을 현재의 고백에서 절대적 신뢰로 이끄는 계시의 사건이다.

**요 11:47-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왔다.

그들의 염려는 겉으로는 민족과 성전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더 이상 단순한 교리적 논쟁에 머물지 않고,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힌 현실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나사로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53절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생명이 드러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음모가 시작되었다. 생명을 나타내신 사건이 오히려 십자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된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단순히 기적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나, 진리를 따르기보다 체제를 지키는 길을 택하였다.

나사로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표적이었지만, 권력을 붙든 자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 <성경에서 믿음의 의미>

### 1. πίστις (피스티스, Faith)

‘πίστις’는 신뢰, 확신, 신실함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πίστις’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참되다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막연한 초자연적 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신뢰이다.

### 2. πιστός (피스토스)

‘πιστός’는 “신실한”, “믿을 만한”, “충성된”이라는 의미로, 신뢰가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며,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πιστός’는 단회적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신뢰의 상태를 의미한다.

### 3. πιστεύω (피스튜오, Believe)

‘πιστεύω’는 “믿다”, “신뢰하다”, “의탁하다”라는 동사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믿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자신을 맡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참된 믿음은 ‘신뢰’(πίστις)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말김이 지속되는 상태(πιστός) 안에서,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πιστεύω)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신뢰에서 시작되어 순종으로 드러나는 살아 있는 관계이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신뢰 없이도 종교적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 없는 행위는 본질을 잃는다.

신앙은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데서 시작된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며, 그 구원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이루어져 간다.

신뢰함으로 자신을 맡기고, 맡긴 대상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다.

본문에서 제자들과 마르다에게 요구된 ‘믿음’은 이미 형성된 신뢰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고, 유대인들과 무리의 ‘믿음’은 아직 신뢰로 나아가지 못한 보편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초기의 믿음을 통해 점차 참된 신뢰로 이끄신다.

**<롬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믿어**”(πιστεύεται)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입술의 고백은 그 내적 신뢰가 외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다.

##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비록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은 때로는 “Yes”일 수 있고, 때로는 “No”일 수 있으며, 때로는 “Waiting”, 곧 기다림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유익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도의 중심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필요를 간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Yes”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을 뿐이다.

기도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응답은 “Waiting”, 곧 기다림이다.

그러나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또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그러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들으시고도 곧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으며,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다.

만일 즉시 고쳐 주셨다면 치유의 능력은 드러났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셨다.

그 결과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또한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라 섭리였고,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영광과 더 깊은 믿음을 위한 준비였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No”로 응답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의 방식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 <요한복음 11장>

죽음의 현실 속에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장이다.

나사로의 무덤은 인간에게는 끝과 절망의 자리였으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예수님의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라 목적이었고, 침묵은 더 큰 계시를 위한 준비였다.

표면적인 해결을 넘어, 더 깊은 믿음과 영광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실재이며, 믿음은 그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장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의 차원에서 절대적 신뢰로 이끄는 계시의 장이다. 무덤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에 머물지만,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 < 제 12 장 >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장이다. 이제 모든 흐름은 십자가를 향해 집중되며,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 위에 선 인류를 향한 최종적 권면이 담겨 있다.

### 요 12:12-19 예루살렘 입성 — 왕의 길과 십자가의 길.

(참조. 마21:1-11 막11:1-11 눅19:28-40)

1. **일요일** : 나귀 타시고 입성. 헤롯성전을 돌아보시며 탄식하심.
2. **월요일** :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정화하심.
3. **화요일** :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권세에 대한 논쟁.
4. **수요일** : 활동 없음
5. **목요일** : 제자들과의 만찬과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6. **금요일** : 체포되시어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 (AD30년 4월 3일 3pm)
7. **일요일** : 부활하심. (AD30년 4월 5일 유대력에 의해 학자들의 고증)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는 스가랴 9:9의 성취이며, 무력으로 오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이다.

군중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으나,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권세자들과 논쟁하시며,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뒤 겿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입성은 환영이었지만 종착지는 십자가였다. 왕으로 오셨으나, 왕좌는 십자가였다.

이제 왕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로 이어진다.

### 요 12:20-43 죽음을 통한 구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뵈고자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하신다. 여기서 “영광”(δόξα)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제 사역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 절정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영광이었다.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확장의 통로이며,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번식이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생명이 열리는 자리이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ὑψωθῶ)는 십자가에 달림과 동시에 높임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중심이며,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죽음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 오셨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순종의 절정이다.

**31절**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는 단지 개인 구원을 넘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우주적 전환점이다.

**36절** “너희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 마지막 권면이 주어진다.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다. 믿으라. 빛을 받아들이라. 지금이 그 때이다.

#### **요 12:44-50**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선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 구원과 심판은 같은 말씀 앞에서 갈라진다.

**46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믿는 자를 심판의 때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 머물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47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심으로, **요3:17**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로 오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믿음을 촉구하신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심으로, 그 구원의 초청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신다. 결국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로서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메시아의 결단과, 그 앞에 선 인간의 선택을 동시에 보여준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호하는 무리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서 결정된다.

## 〈예수님 고난주간 사건〉

요일	장소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고
일요일	베다니	예루살렘입성	21:1-9	11:1-10	19:29-44	12:12-19	
		나귀타고 입성. 백성들의 환호.					
		헬라인과 대화				12:30-36	
월요일	베다니	무화과나무 저주	21:18-22	11:12-26			
		성전정화	21:12-13	11:15-19	19:45-48		
		병자 치유	21:14-17				
화요일	예루살렘	예수 권위시험	21:23-27	11:27-33	20:1-8		
		비유설교	21:28-25:46	12:1-13:37	20:9-21:38	12:37-50	
		유대인들의 모의	26:1-5	14:1-2	22:1-2		
		가롯 유다 변심	26:14-16	14:10-11	22:3-6		
수요일	기 록 없 음						
목요일	예루살렘	최후의 만찬	26:20	14:17	22:14-18	13:21-16장	
		제자들 발 씻김	4:32-42			13:2-17	
	감람산	겻세마네기도	26:36-46	14:32-42	22:40-46	17:1-26	
금요일	감람산	주께서 잡히심	26:47-56	14:43-52	22:47-53	18:2-12	
	예루살렘	안나스/가야바심문	26:69-75	14:53-65		18:2-12	
		베드로의 부인	26:69-75	14:54-72	22:54-62	18:15-18	
		가롯 유다 자살	27:3-10				행1:18
		열시 당하심	26:67-27:30	15:16-19		19:16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	27:31-61	15:20-47	23:26-56	19:17-42		
일요일	갈보리	부 활	28:1-20	16:1-18	24:1-49	20:2-21:25	
	감람산	승 천		16:19-20	24:50-53		행1:4

## < 제 13 장 >

### 요 13:1-20 제자들의 발을 씻김

**1절** ~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ἀγαπάω) 끝까지(τέλος. 완성)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ἀγαπάω 아가파오)는 감정적 애정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한다.  
“끝까지”(τέλος 텔로스)는 단순한 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과 목적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구절이다.

< **벤전 1:9** 믿음의 끝은(τέλος 테로스) 곧 영혼의 구원을(σωτηρία 소테리아) 받음이라 >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σωτηρία)을 위한 종말론적(τέλος)인 사랑(ἀγαπάω)이다.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서 완성된다.  
발을 씻기신 사건은 단순한 겸손의 교훈이 아니라,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상징적 행위이다.  
구원의 길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몸으로 먼저 보여주신다. 높으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을 씻기는 행위 속에 미리 담아 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윤리적 모범을 넘어서, 십자가의 방향을 예고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16절** ‘보낸 자’(πέμπω 펴포) :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ἀπόστολος 아포스톨로스) : 그 메시지를 위임받아 선포하도록 택한 받은 자.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보내는 이의 권위가 있어야 파송이 성립하고, 파송된 자가 있어야 보내는 이의 뜻이 역사 속에 드러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셨고,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는 위임의 사슬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다. 보내심은 곧 사명의 연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의 존재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자기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내는 자이다.

그러므로 파송의 핵심은 권한만이 아니라 일치에 있다.

보내신 분의 뜻과 보냄 받은 자의 삶이 일치될 때, 그 보냄은 참된 권위를 갖게 된다.

**20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보내신 분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권위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보낸 이의 뜻과 일치될 때 나타난다.

사역자의 권위는 스스로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러난다.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자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낸 자’(sender)가 있어야 ‘보냄을 받은 자’(sent one)가 존재하고, ‘보낸 자’(sent one)가 있어야 ‘보낸 자’(sender)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도들을 택하여 보내신 예수님과 그 부르심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는 혼연일체의 관계이다. 이 말씀에는 ‘보냄을 받은 자’(sent one)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 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에 대한 권위는 자신이 스스로 간직하고 나타내야 한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보내신 분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권위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보낸 이의 뜻과 일치될 때 나타난다.

사역자의 권위는 스스로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뜻을 앞세우면 권위는 무너지고, 비록 연약할 지라도 보내신 분의 뜻에 충실하면 그 안에서 참된 권위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중심은 자기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전달에 있어야 한다.

### **요 13:21-30 가롯 유다의 정체**

가롯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주권적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그 부름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한 매개체로서의 선택이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아셨다.

**(마 26:24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요 6:64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배신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돌발 사건이 아니라 예정된 길이었다.

중요한 것은 ‘알고도 택하셨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배신조차 하나님 구속의 섭리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반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12:6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유다의 정체성)**

겉으로는 제자였으나, 내면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외적 소속이 곧 내적 충성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한 자는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게 하실 때, 유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줬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강조는 그의 직책이 ‘돈궤를 맡은 자’, 곧 관리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재정 관리자로 있었다. 그러나 그 직책 속에서도 이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고, 탐욕은 점차 그의 존재를 잠식하였다.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위치와 역할은 외적인 것이지만, 방향과 중심은 내적인 것이다.

유다는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마음은 이미 다른 주인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 <사탄의 역사>

### **2절**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넣었다’는 표현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생각이 먼저 씨앗처럼 심어졌음을 보여준다.

- 사탄은 먼저 대상자에게 교만, 시기, 탐욕, 거짓과 같은 생각을 마음에 심고(유혹), 그것이 자라도록 그 사람의 상황과 때에 맞추어 영혼을 지배하여 행하게 한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다. 마귀는 그 생각을 총동질한 것이다.

- 사탄은 우리에게 죄지를 구실을 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의지가 약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생각이 완고해서 또한 그 구실에 동조하기에 결국 그 마귀에게 지배되어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 **<대상 21:1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총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총동은 사탄에게서 왔으나, 선택은 다윗의 책임이었다. 인간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의지의 문제이다. 의지가 약하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완고해질 때,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배로 나아간다.

여기서 죄의 진행 구조가 드러난다. 유혹 → 동조 → 실행 → 지배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내면을 장악하게 된다.

### **13:27**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지라.

처음에는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동조였으며, 마지막에는 지배였다. 이것이 죄의 진행 구조이다.

그러나 가롯 유다의 경우는 단순한 개인적 타락을 넘어선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사용된 도구였다. 그렇다고 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선택은 그의 것이었고, 그 결과 또한 그의 것이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는 빛 가까이에 있었으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다는 경고이며, 생각의 단계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지배에 이른다는 영적 원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배신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배신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의 어둠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 계획 안에서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한 도구로 사용되는 매개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분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자로 쓰임 받는가는 인간의 방향과 선택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예정의 선언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경고이기도 하다.

### 요 13:31-35 새 계명을 주심.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1-33절**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에 하신 말씀이다.

배신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선언하신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과 죽음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 부르신다.

‘지금’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영광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화”(δοξάζω 독사조)는 단순히 칭송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 참된 본질과 위엄이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 드린 ‘영광’과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영광’이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심으로(사역의 완성)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며, 순종의 절정에서 드러나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이다.

**3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τεκνία)라고 부르신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떠나실 것을 제자들을 향해 남기시는 사랑의 언어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나, 그분이 가시는 길은 대신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십자가는 동행의 길이 아니라 대속의 길이기 때문이다.

구속은 위임될 수 없고, 고난은 분담될 수 없으며, 속죄는 대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오직 그분만이 가셔야 할 길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사명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다. 바로 이 배경 위에서 “**새 계명**”이 주어진다.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ἀγαπάτε ἀλλήλους 아가파테 알렐로우스)

“**계명**”(ἐντολή 엔톨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명령이다.

여기서 “**사랑하라**”(ἀγαπάω 아가파오)는 감정적 호의가 아니라 의지적 헌신이며, 자기 희생을 포함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붙는다.

예수님의 ‘아가파오’는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아가파오’ 역시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책임지는 사랑이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책임이며,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요21:15**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ἀγαπᾷς)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φιλω)’로 대답한다. 베드로는 ‘아가파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었다. 그는 아직 그 자리까지 자신을 두지 못했던 것이다.

이 장면은 ‘아가파오’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내어주는 사랑임을 보여준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아가파오)”. 이는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적 사랑이다.

**요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드러난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랑의 대부분은 동사형 ‘ἀγαπάω’(아가파오)이다. 이는 행하라는 명령이다.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가페’(ἀγάπη)는 명사형으로, 그 사랑의 본질과 상태를 말한다.

복음서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며, 서신서의 사랑은 존재 안에 형성된 사랑이다.

마음에 품는 것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가파오’이다.

<예수님에 대한 ‘아가파오’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이 ‘아가파오’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줌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가파오’이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징은 기적이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직분이나 지위도 아니다.

서로를 향한 ‘아가파오(ἀγαπάω)’, 곧 희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제자의 표징이다.

외적인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낸다.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를 구분하신다.

기적은 감탄을 일으킬 수 있으나, 사랑은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은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계승하는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준은 십자가였다.

곧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의 사랑이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데서 완성된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순종에서 드러났고, 제자들의 영광은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 안에서 드러난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자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요 13:36-38**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심. (참조. 18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의 열정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이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부정이 아니라 드러냄이다. 베드로 안에 있는 진심은 인정하시되, 그 진심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밝히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하였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고, 감정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진심과 지속성은 다르다.

순간의 결단은 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외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끝까지 지탱할 내적 상태를 보신다

그동안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다.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은 하였으나, 고난받는 메시아로는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랍비요, 선지자였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으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구원자로서의 이해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외쳤던 자들이었고,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은 진실했지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었다.

경험은 있었으나, 해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이 십자가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는 ‘메시아 이해’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영광의 메시아는 받아들이지만, 고난의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며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아직 십자가를 견딜 만큼 깊지 않음을 아셨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베드로 개인의 실패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적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단과 의지, 열정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

사람의 각오는 순간적으로 강할 수 있으나,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자기 의지에 의존한 믿음은 시험 앞에서 드러난다. 이 믿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다.

부인하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된다. 두려움에 숨어 있던 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결국 순교까지 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들이 되었다.

베드로의 부인은 실패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 이전의 인간적 신앙과 성령 이후의 사도적 신앙을 대비하는 계시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신앙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을 의지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설 능력 또한 준비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인간의 결단은 흔들릴 수 있으나,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무너뜨리시는 대신 오히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음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장면이다.

### <요한복음 13장>

십자가 이전에 주어진 마지막 준비의 장이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사랑을 남기셨고, 사명을 남기셨으며,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므로 신앙은 열정으로 시작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섬김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이어지며,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길을 여셨고, 제자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

## < 제 14 장 >

요14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위로하시며, 자신의 신적 정체성과 성령의 오심, 그리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밝히시는 장이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계시였다. 이 장은 감정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를 준비시키는 ‘진리의 선언’이다.

### 1.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심.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동일한 차원의 신뢰를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셨음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단순한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권위와 자격으로 두고 같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실 수 없다.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존재의 차원도 동일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위로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14:7**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단순한 시간의 전환이 아니라, 이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가리킨다.

그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보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았다는 의미이다. 이 선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밝히는 말씀이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이다.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나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가 서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계시며 하나의 본질과 하나의 생명 안에서 함께 존재하신다는 뜻이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은, 두 분이 함께 계신 관계가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나눌 수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다는 의미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친히 행하시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안에 거함”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존재의 하나 됨을 드러내는 선언이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연합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이다.

## 2. 예수님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심.

**14:16**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파라클레토스)는 ‘παρά’(곁에서)+‘κλετός’(보내다)의 합성어로서 ‘남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이란 의미를 가졌으며, 법률 용어로서 ‘법적인 보조자’, ‘변호자’, ‘대리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혜사’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삶 전체를 보호하고, 모든 문제를 변호하며, 대신 책임지고 돕는 존재를 의미한다.

“다른”(ἄλλος, 알로스)은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니라, 동일한 본질 안에서 또 다른 위격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보혜사이셨고, 성령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보혜사이며, 성령은 열어 놓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다.

그러므로 두 보혜사는 사역은 구분되지만, 본질은 동일한 하나님 사역의 연속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성령의 임재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끝까지 함께하시는 임재임을 의미한다.

구약의 ‘임하심’이 일시적이었다면, 신약의 ‘내주하심’은 영구적이다.

(**마28:20**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14:17**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계시고”에서 “안에 계신다”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관계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정 인물 위에 임하셨으나, 이제는 신자 안에 거하신다.

세상은 그 성령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감각으로 인식되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인식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핵심 사역은 단순히 능력만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는 부활 이후의 나타나심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오실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임재로의 전환이다.

#### **14:19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를 보리니”. 부활 승천이후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실 것을 말하며, “내가 살아 있고”, 성령으로 오시어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므로,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성령의 임재로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 안에 역사하게 됨을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생명이 성령 안에서 신자에게 역사함을 선언하신 것이다.

생명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전달되는 실재이다.

####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성부), 너희가 내 안에(성자), 내가 너희 안에(성령)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 오순절 성령강림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성부’-‘성자’-‘성령’, 그리고 ‘신자’까지 연결되는 연합 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다.

####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키는(τηρέω)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행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더 하는 분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확신으로 바뀐다.

성령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혼란은 확신으로, 흔들림은 순교적 헌신으로 바뀌었다.

이는 환경의 변화나 성령의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내적 역사이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고 확신으로 전환된다.

성령의 사역은 ‘새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살아있는 진리로 만드는 것’이다.

### 3.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심.

#### <천국의 장소성>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가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실재적 공간 개념을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장소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집”(οἰκία 오이키아)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건물이나 거처를 의미하고, “거처”(τόπος 토포스)는 주변 공간으로부터 구별되는 일정한 영역의 공간을 뜻하며, “거할 곳”(μοναί 모나이)은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처소, 곧 영구적인 거주지를 의미한다.

이 세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천국이 추상적 상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거주할 수 있는 영역’임을 강조한다.

또한 “가노니”, “다시 와서”라는 표현 역시 장소와 이동을 전제로 한 관계적 표현이므로 천국은 신화적이나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이 전제된다는 것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실제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 <‘거처’와 ‘거할 곳’의 의미>

‘거처’(τόπος)는 아버지 집, 곧 천국이라는 큰 영역 안에 마련된 거주 공간을 의미하며, ‘거할 곳’(μοναί)은 그 거처 안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안식하며 거하게 될 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집’은 전체 영역, ‘거처’는 그 안의 공간, ‘거할 곳’은 개인이 머무는 자리로 점점 구체화 되는 구조이다.

**14:2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미 천국이라는 거처와 성도들이 거할 곳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이다.

그 길은 십자가에서 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준비의 대상은 ‘장소’가 아니라 ‘길’이다. 그러므로 “예비”는 건축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14: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 말씀은 성령강림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구원의 길’ 위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포함하는 말씀으로,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 동시에 포함된 선언이다.

“나 있는 곳에”라는 표현은 천국이 인간적인 혈연관계로 유지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준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 형성되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천국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천국의 중심은 ‘장소’보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소속을 결정한다

**14: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은 단순히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공간적 길을 묻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존재적 길을 말씀하고 계셨다.

**14:6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시에는 영혼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사상과 여러 종교적 혼합주의가 존재하였으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원의 길은 인간의 지식이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체이신 분이시다.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심으로 천국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생각하려는 이원론적 사상을 부정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천국 또한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신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으며, “구원”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다.

#### 4.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말씀하심.

**14:10**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그의 일을 행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독립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 사역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여기서 핵심은 ‘행하시는 주체’이다.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사역의 본질은 인간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14:12**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의 기초였으며, 제자들이 장차 감당하게 될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란 기적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확장을 의미한다.

육신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도록 사역의 기초를 놓아 주신 것이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며, 구원의 본질을 가리키는 도구였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성령 이후에는 전 세계로 확장된다.

‘더 큰 일’은 질적 우월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범위의 확대이다.

**14:13**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ποιέω 포이에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이며,

“간구하다”(αἰτέω 아이테오)는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직접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의 조건이 **15절**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씀이다.

이 계명은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의미이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영혼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14:13** “무엇을”(ὅστις 호스티스)

‘누구든지’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대상의 제한이 아니라, 참여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14:14** “무엇이든지”(τις 티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신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15:7** “무엇이든지”(ὅ ἐάνν 호 에안)

‘이것이든 저것이든’, ‘언제든지’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나타낸다.

범위는 넓지만,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다.

이 장의 핵심은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임재’이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더 깊은 방식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은 위로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

## < 제 15 장 >

**요 15:2**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거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이다.

“**붙어있어**”(ἐν 엔) : ‘~안에’, ‘~와 함께’라는 의미로 단순히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외적 동행이 아니라 생명이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열매**”(καρπός 칼포스)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와 사역의 결과,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결실을 의미한다.

“**맺다**”(φέρω 페로)는 ‘가져오다’, ‘인도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도록 드러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지는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깨끗하게 하다**”(καθαίρω 카다이로)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의미하며, 이는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을 뜻한다.

제거는 버림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결실을 위한 준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훈련이다.

이러한 은혜의 조건은 ‘**내게 붙어 있으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제거되지만, 명하신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더한 은총을 주신다(구원의 상급).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 구원 안에 있는 자의 ‘증거’로 드러난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뜻을 따르려는 인간의 선택과 의지 속에서 나타난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적 관계를 의미한다.

생명의 근원이 포도나무에 있듯이, 신자의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다.

따라서 ‘거함’은 일시적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이다.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는 세상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무력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결과이다.

**요 15:7**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ρῆμα)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γίνομαι 기노마이)는 ‘생겨나다’, ‘이루어지다’, ‘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역사하심을 의미한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결과이다.

‘구하라’(αἰτέω 아이테오)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간구를 뜻한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행위이다.

‘그리하면’(καὶ 카이)은 ‘그리고’, ‘또한’이라는 의미로 앞의 조건과 결과가 연결됨을 나타낸다.

조건과 응답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

여기서 “안에”(ἐν)는 ‘함께’, ‘연합하여’라는 의미이며, “거하다”(μένω, 메노)는 머무르다, 지속하다, 굳게 지키다라는 뜻으로 지속적인 관계와 동행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이다.

“말”(ῥῆμα, 레마)은 단순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의미이다.

이는 <요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친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 5절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와 상급의 열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열매는 존재의 증거이며, 관계의 결과이다.

### 7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그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

“만일”(ἐάν, 에안)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조건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약속은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말씀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

## <레마와 로고스>

### “말”(λογος 로고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말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계시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의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로, 존재의 근원과 질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 “말”(ῥῆμα 레마)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특정한 시간과 상황과 때에 맞추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개인에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말씀을 의미한다.

‘로고스’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현재적으로 드러나고 적용되는 ‘살아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마’는 ‘로고스’보다 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적용의 성격을 가지며,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받아들여져 사람의 영을 깨우는 영적 언어라 할 수 있다.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들려질 때 개인의 삶 속에서 ‘현재의 말씀’이 된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는데 <히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ῥῆμα)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였고, <롬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ῥῆμα)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리고 깨달아질 때 믿음이 형성됨을 나타내고 있다.

레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며, ‘레마’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적용되어 사람의 마음에 들려지는 ‘살아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은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를 기초로 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레마’로 깨달아질 때 참된 믿음으로 나타난다. 기록된 말씀 위에 서지 않은 ‘레마’는 기준을 잃고, ‘레마’로 살아나지 않은 ‘로고스’는 생명력을 잃는다.

###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ῥῆμα)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 곧 주어진 일을 알고 그것을 굳게 지켜 행하는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시어 나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

**요1:14**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에서 ‘거하시매’(ἐσκήνωσεν, 장막을 치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하시는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덮고 있는 외적인 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요15:7** “너희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은 단순히 함께 계시는 차원을 넘어 성령께서 사람의 삶과 존재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인 임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요1:14**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하시는 공동체적 임재라면, **요15:7**의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개인의 삶과 사명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보다 깊은 차원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ἐντολή 엔톨레)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4절** 너희는 내가 명(ἐντέλλωμαι 엔텔로마이)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ἐντέλλωμαι 엔텔로마이)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목적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이다.

## <명령과 계명>

“명령”(ἐντέλλωμαι 엔텔로마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이다.

“계명”(ἐντολή 엔톨레)은 ‘명령’에서 파생된 단어로, 신의 명령이나 통치자의 위임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나 법을 의미하며, 삶 전체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권위로부터 나온 명령의 내용이다.

신약에서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직접 명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와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계명’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는 삶의 방식과 관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말씀들이 그것이다.

이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규정하는 ‘관계의 기준’이다.

따라서 ‘계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며(keep), ‘명령’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do).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완성’이다.

‘계명’은 방향을 세우고, ‘명령’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이 ‘명령’(ἐντέλλομαι)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지만, 거역에는 저주가 따르게 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에 저주를 받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기에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순종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이다.

#### **요 15: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φίλος 필로스)는 ‘필레오’(φιλέω)에서 파생된 단어로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사랑”(φιλέω 필레오)은 관심과 돌봄, 환대의 의미를 포함하며 사물이나 사람에게 대한 애착과 정을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필로스’는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속에서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며, 이는 감정적 친밀함을 넘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은 순종을 통하여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 **요 15:16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는 말씀은 사역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사역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영육 간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의미이다.

택하심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명을 전제로 한 부르심이다.

또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열매 맺는 사역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의미한다.

사역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요 15:18-27**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구약을 인용하시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심.

(**시35:19**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0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20절** “지키다”(τηρέω 테레오)는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켜보며 트집 잡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 말씀을 트집 잡아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같은 방식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 <요한복음 15장>

제자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그 삶의 중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명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며,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며, 바로 그 열매가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 < 제 16 장 >

**요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장차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 박해를 행하는 자들조차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박해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묻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며,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점’(point of view)은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을 기준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으며,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요2:17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열심”(ζήλος 켈로스)은 열정과 열의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감정에 의해 마음의 힘을 소모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인간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지한 열심’은 순종이 아니라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방향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소진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요 16:4**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신으로 인해 훼방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자들에게 박해와 환난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승천하신 후에 교회와 제자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참조. 마10:16-39)

### 요 16:7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내리니”(πέμπω 펴포)는 ‘보내다’, ‘어떤 대상에게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진 파송을 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떠나가야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되어 이루어진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신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일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 성령의 사역이 시작됨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신 후, 성령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때가 되어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과 성령 강림은 하나의 구속 역사 안에 있는 연속된 사건으로,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성령 안에서 적용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 요 16:9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절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죄”(ἁμαρτία 하마르티아)는 옳은 길에서 의식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3:19 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므로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며,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것이다.

“의”(δικαιοσύνη 디카이오쉬네)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상태, 곧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옳음’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 되었음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이 드러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되는 것이다.

“심판”(κρίσις 크리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과 판결을 의미하며,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최종적 선언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을 가리키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이미 패배하였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은 미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미 시작된 사건이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으며 세상 종말에 이르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 **요 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았지만, 그들이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 **요 16:13**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를 점차 드러내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진리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신약 성경이 형성될 것을 의미한다. (참조. 요14:26)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장래 일”이란 단순한 미래 사건의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밝히 보여 주시는 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모든 신자에게 전해지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벧후1:21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다. 결국 성령의 사역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드러내고 적용하는 데 있다.

<장래 일>(ἐρχομαι 엘코마이)

“장래 일”은 단순한 미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드러날 일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부터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며, 그 계획하신 일들이 때에 맞추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과 성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사43:19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때가 되어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나타낼 것이다”(Spring up)라는 표현 역시, 싹이 나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심겨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때가 되어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장래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리시고 준비하게 하실 때도 있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먼저 있고, 보이는 성취는 그 결과로 나타나며, 미래는 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된 성취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미래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נְבוּאָה 네부아 / נָבִיא 나바 / προφητεύω 프로페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 주신 장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말에서 유래된 동사는 ‘나바’이며 이는 ‘예언하다’라는 뜻으로 ‘선지자’(나비)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신약에서는 예언을 ‘프로phetia’라고 하는데, 이 용어 역시 히브리어 ‘네부아’와 같은 의미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언은 인간의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로서, ‘앞서 말한다’는 의미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먼저 선포하는 데 있다.

## 1. 예언의 조건

예언의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내용을 계시해 주셔야 예언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그의 뜻대로 계획하신 섭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 있어야 예언이 가능하며, 계획되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기초로 하며 그 선행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시면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계시해 주셔야 그가 먼저 알게 되고, 먼저 알게 되어야 예언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며,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작정하신 뜻을 미리 알게 하신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시대에는 족장들,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으며, 신약시대에는 세례요한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언을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예언의 선행조건은 하나님의 창세 전 작정하심과 그 작정하신 내용을 계시하심에 있으며, 이러한 선행 조건 위에 세워진 예언이 곧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예언의 구분

성경적인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과 ‘간접적인 예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예언’은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내용을 음성이나 환상 또는 꿈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직접 주어지는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처럼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에는 족장들이나 선지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예언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은 대부분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한 대표적인 ‘직접계시’의 예언이며, 또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예언 역시 직접계시에 의한 예언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적인 예언’은 이미 완성된 직접적인 예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예언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론하는 행위는 간접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예언의 목적

예언의 목적은 계시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예언의 중심은 미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직접적인 예언의 목적은 성경 계시의 완성에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반면 간접적인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에 족장들과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의 직접적인 예언을 통하여 구약성경을 완성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택하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직접적인 예언을 통하여 신약성경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장래 일”과 “예언”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장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사건 자체이고, ‘예언’은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다.

사도 이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도들과 같은 수준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계시의 완성과 사도적 권위의 성격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사도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단회적인 직분으로, 사도직은 반복되거나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동일한 성령이지만, 사역의 방식과 목적에는 구속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한 복음과 그 기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권위와 사역은 오늘날의 종들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없으며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 이 시대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와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뜻을 풀이해 주시며 또한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나 인간적인 해석만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깨달아져야 한다.

주석가나 학자들이 연구하여 설명하는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는 말씀의 뜻은 그 깊이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인간의 해석은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계시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요 16:16-20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심.**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적 흐름이다.

**요 16:28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완전한 사실을 말씀하심.**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심을 선언하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세상에 왔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인성을 의미한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승천을 통하여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요 16:29-33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의 능력)**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승리를 현재형으로 선포하신 것으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ῥα)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역시 이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악한 영들과 싸우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 위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의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 위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신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승리 위에서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제 17 장 >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으로 겿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이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며,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마무리하는 절정의 기도이다.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구속 사역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선언적·중보적 기도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셋째는 장차 예수를 믿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이다.

**요 18:1-2**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 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다. 그리고 **18:3-11**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베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의 흐름에서는 17장이 기도, 18장이 체포로 바로 연결되며, 이 기도는 십자가 직전의 마지막 영적 준비의 장면이다.)

(참고. 마26:47-52, 막14:22-26, 43-50, 눅22:39-53, 요18:3-12)

### 1. 공관복음서의 기록

공관복음서에는 그때의 상황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고, 다시 그 세 제자를 두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었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세 번의 기도인 마26:39, 42, 44의 내용은 다르지만, 요17:9, 15, 20에 나타나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이다.

-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의 외적인 체포, 제자들의 반응, 겿세마네의 긴박한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사건의 외형보다 ‘내용’,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 공관복음은 시간의 흐름 속 사건의 전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요한복음은 그 사건에 담긴 의미와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록의 차이가 있다.

- 공관복음이 사건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보여 주는 ‘요약된 형태’라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와 기도의 내용을 풀어내어 보여 주는 ‘내면적 해석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은 공관복음에서 간략히 나타난 겿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확장하여 드러낸 본문으로 볼 수 있다.

## 2. 기도의 내용

- 공관복음서의 기도.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εἰ δυνατόν 에이 뒤나톤)은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긍정에 대한 간접적인 질문의 표현이다.

“**마4:6**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마14:28**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역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지나가게 하소서”(παρέρχομαι, 파렐코마이)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파라(παρέ, 곁에)+엘코마이(έρχομαι, 오다)’의 합성어로 나에게 반드시 닥쳐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심령의 깊은 고통 속에서 드린 호소이다.

- 기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령으로 한 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마26:38**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περίλυπος θανάτου, 페릴뤼포스 다나투)라는 말씀은 ‘지금 내 심령이 죽을 만큼 괴롭고 슬프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시고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셨는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이다. (‘겿세마네의 기도’ 참조)

공관복음은 ‘고통의 상태’를 보여 주고, 요한복음 그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여 준다.

## 3. 기도의 대상

예수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다.

**요17:9**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말씀하시고 있으며, **12절**에서는 열두제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20절**에서는 장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 곧 당시의 공동체를 넘어 미래의 교회 전체를 포함하는 보편적 범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한 개인 간구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드리는 중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구속적 기도이다.

#### 4. 기도의 결론

“**요17:23-24** 그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온전함을 이루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보호받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해 달라는 간구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보호의 요청이 아니라 ‘현재의 보존 → 궁극적 완성 → 영광의 참여’로 이어지는 구원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기도이다.

#### **요 17:1**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ώρα, 호라)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시점(point of time), 곧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카이로스)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킨다.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시간이 ‘카이로스’이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순간이 ‘**호라**’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질 사건이며,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호라**’이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역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안에 정해져 있으나 그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호라**’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날과 그때(호라)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적 개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고, ‘호라’는 그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순간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결정적인 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호라**’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호라**’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호라**’라는 개념은 종말론적 묵시(Apocalypse)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역사가 이 ‘**호라**’의 시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δοξάζω 독사)는 ‘영광을 주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로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를 높여 주는 것을 뜻한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단순한 존귀함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받게 되는 영예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의 영화는 곧 하나님의 영화이며, 십자가 사건 자체가 영광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요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어 그들이 온전한 사역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 달라는 간구이다.

“거룩”(ἀγιάζω 하기아조) :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화(성결)하게 하다.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자신을 신성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거나 여긴다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인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믿음을 뜻한다.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거룩’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1절, 4절, 예수님의 거룩), 제자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사역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로부터 보전해 달라는 간구이다(15절 제자들의 거룩).

예수님의 거룩은 단순한 성결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봉헌’을 말한다.

**요 17: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받으신 영예를 의미하며,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통하여 받게 될 영예를 가리킨다.

“그들에게”(αὐτοῖς, 아우토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각 사람의 사역과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 주시는 것이다.

**23-24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어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사역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게 되기를 간구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간구이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룬 제자들이 그 연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준다.

### <요한복음 17장>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신 마지막 기도로서, 자신이 이루실 구속 사역과 그 열매가 제자들과 장차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간구하신 것이다.

이 기도는 택하신 백성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보존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 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드린 기도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은 구속의 완성과 그 적용이 교회에까지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취되는 전 과정을 담은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

# <겻세마네의 기도>

(마26:36-46/ 막14:32-42/ 눅22:39-46/ 요17:1-26)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성으로서 이 땅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이다.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 : Last Public Career Pray)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도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 I. 겻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어떠한 심령으로 한 간구인가?

**26:38**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죽음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슬퍼하시며 괴로운 심령으로 기도하셨는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에 대한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령의 깊은 고통에서 나온 간구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심령의 고통이 무엇이기에 땅이 피방울이 되는 간구였는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 고뇌, 갈등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보아야 한다.

## II. 마태복음의 세 번의 기도에는 각각 어떠한 내용의 간구인가?

1. **26:39**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17:9-14)

★ **요17: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한다.

그러나 재림 때까지 악한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남아 있는 저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신 것이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안타까움에서 나온 간구이다.

2. **26:42**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17:15-19)

★ **요17: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달라는 간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와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3. **26:44**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17:20-23)

★ **요17: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장차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기도이다.

★ 예수님 기도의 결론은 제자들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보호받아 구원을 이루도록 지켜 달라는 간구이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17:15**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시어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가 되어, <**17:24** 예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간구이다.

또한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비장한 결단의 기도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마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다.

### III.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마26: 38, 41)>고 말씀하신 의미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다.

<벧전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딤후2:26 저희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눅22:40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피며 경계하라는 의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영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다.

### IV.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마26:41.43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원이로되”라는 말씀은 영은 깨어있으려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혼이 영의 원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눈이 피곤함이라”에서 ‘피곤함’이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무거운 짐에 눌린 상태를 의미한다.

눈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며 경계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하여 사탄의 공격으로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깨어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은,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의 놀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악한 영에게 눌린다는 것은, 그들이 악한 영과 싸울수 있는 힘, 곧 영적 권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 V. 영적 놀림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눅24:49**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 **행2:4** 성령이 임하므로 충만함을 받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충만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도우심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행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 VI.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이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의미한다.

### <Epilogue>

**<눅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이다.

이 기도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 뜻을 막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방해하였을 것이다.

제자들 역시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든 공격을 물리치시며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리신 이 간구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을 앞둔 기도가 아니라, 사탄의 공세를 물리치시는 기도였으며, 동시에 재림 때까지 사탄의 공격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 달라고 드린 간구를 넘은 호소였다.

## < 제 18 장 >

**요 18:1-2** 13장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 상황을 기록.

**요 18:3-14**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 무리에게 잡히심.

**요 18:15-27**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

**요 18:28-19:16**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였는가?> (참조. 요13장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는 어느 제자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며,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고백과 행동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나타난다.

<나는 죄인입니다> /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고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 말고의 귀를 베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주변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는가?

### 1.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직접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차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

고백은 있었으나, 그 고백이 삶 속에서 변함없이 유지되는 확고한 믿음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 2.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잡혀 고초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다.

“이성적인 인간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게 만든다.

우리는 생각과 판단, 감정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히11:1) 이성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면 확신이 없어서 결국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한계>이다. 이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것이 “영권”이다.

#### <마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였다. (17장 겟세마네 기도. 참조)

눈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하여 악한 영에게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기도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지력은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의지력 역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의지력이 약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며 부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제자들의 영권이 약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에 성령의 역사가 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순교까지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영권’이다.

이 ‘영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영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며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참조. 요5장 타랏소)

#### <영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세상의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엡 1: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ἰσχύς / 이스퀴스) : 하나님 고유의 힘 (Power)

‘위력’(κράτος / 크라토스) : 선천적인 능력 (Ability)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힘과 위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δύναμις, 뒤나미스)이 부여될 때 필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능력을 실제로 행하는 힘이 바로 ‘영권’이다.

이 영권은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타랏소의 능력’이다.

사탄 역시 자신의 위력으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 < 제 19 장 >

**요 19:1-16** 빌라도의 재판을 기록한 내용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이다.

**요 19:17-37**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요 19:38-42**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이다.

‘빌라도’(Pontius Pilatus : 로마인. AD 26-36 유대 지방 총독)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그를 놓아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 강하게 요구하자, 빌라도는 이러한 정치적 위험과 민중의 소요를 두려워하여 끝내 자신의 판결을 굽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으로 인해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알면서도 정죄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되었다.

###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예정된 인물인가?>

빌라도가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게 된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예정되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 계획 속에서 역사적 시간 가운데 사용된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카이로스’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역사적 시간인 ‘크로노스’ 안에 나타난 인물이다.

빌라도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카이로스’의 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가 빌라도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 안에서 ‘크로노스’를 사용하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점인 ‘호라’ 안에서 ‘카타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택하신 자에게는 그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예정된 ‘카이로스’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들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용할 때가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비추라” 명하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을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앗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메데와 바사는 회개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나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회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나라였다.

지금은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지만, 애굽(Egypt)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열한 명의 사사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신 사람들이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예정하신 인물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주권적으로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피조물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단순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사명으로 부름받는 것은 구별된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찾아야 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요 19:30 다 이루었다 하시고 ~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노라!> (τετέλεσται. 테텔레스타이)

(끝나다 finish. 완성하다 complete. 수행하다 carry out. 성취하다 accomplish)

죄 없는 예수님은 범죄자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렸고, 죄 있는 바나바는 자유인이 되었고, 생수의 강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어가고 계신 이때에, <다 이루었노라>고 선포하고 있다.

죽어 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 ① τετέλεσται !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며, 곧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완성되었다’는 완료형 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더 이상 보완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냄)

### ② τετέλεσται !

하나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로서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는 선포이다.

### ③ τετέλεσται!

예수님 구속 사역의 완성에 대한 선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으로서 말으신 사명을 모두 이루시고 본래의 위치인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다는 선포이다. (이 승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전환을 의미한다.)

### ④ τετέλεσται !

사탄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인류의 죄와 질고와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이며 복음의 핵심이다.

(이 승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전환을 의미한다.)

“τετέλεσται” 이 짧으면서도 장엄한 한마디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παρέδοκεν τό πνεύμα 파레도켄 토 퓨뉴마)

“떠나가시니라” (παραδίδωμι 파라디도미)

(영혼이) 몸으로부터 나가 어느 특정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내어 맡기다,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 프뉴마(πνεύμα) :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의미.

이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생명이 있을 때는 몸 안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숨과 함께 몸을 떠나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 (חַיִּיתָ הַחַיָּה 니쉬마트 하임)를 말한다.

- 프쉬케(ψυχή) : 영혼. 목숨. 생명(생명의 원리로서)을 의미.

육체와는 다른 존재로,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영혼’을 말한다.

<계 6:9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 죽은 후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영혼의 상태를 보여 주는 말씀으로, 여기서 ‘영혼’은 ‘프쉬케’를 의미한다.

‘프쉬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생명’(생기: חַיִּיתָ הַחַיָּה, 니쉬마트 하임)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영혼을 가리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창2:7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חַיִּית שָׁמַיִם, 네페쉬 하이야)은 하나님의 ‘생기’(חַיִּית אֱמֶת נִשְׁמַת 하임)가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 <‘프쉬케’와 ‘프뉴마’의 관계>

‘프쉬케’(영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프뉴마’(생기)가 있어야 한다.

‘프뉴마’(생기)가 들어오므로 ‘프쉬케’(영혼)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생령)

육체는 이러한 영의 활동을 위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프뉴마’와 ‘프쉬케’가 함께 작용하는 존재로,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 <인간과 동물의 차이>

- .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인간과 필요에 따라 창조한 동물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

이는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은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 . 생물은 ‘흠’으로 지으시고 ‘말씀’에 의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은 ‘흠’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위에 ‘생기’를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한 생물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함께 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 <가시관>(crown of thorns)

“창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의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이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비록 타인에 의해 씌워진 것이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온 원죄와 인간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나 이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 < 제 20 장 >

### <예수님의 부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각기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모순이 아니라 각 복음서 기자의 관점과 기록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관복음서는 전해 들은 사건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된 반면, 요한복음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각기 다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어떤 부분은 간단하게, 어떤 부분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서술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사건의 시간적 순서보다는 신학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기록된 경우가 많다.

### 요 20:1-8 빈 무덤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의미한다.

이후 초대교회가 예배드리게 되는 “주의 날”(κυριακή ἡμέρα)의 기초가 된다.

“아직 어두울 때에”는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 주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고 아직 부활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도 그것을 부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상 속에 숨겨진 본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절** ~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시신이 옮겨졌다고 생각하였으며, 제자들 역시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즉시 깨닫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두 제자는 즉시 무덤으로 향하지만, 이는 부활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인간적인 반응이었다.

이 장면은 부활 이전 제자들의 상태가 여전히 이해와 믿음 사이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준다.

**4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고, 무덤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욱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 **5-6절** 세마포와 수건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수건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는 시신 도난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며, 동시에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 **7절** 또 머리를 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 있더라.

수건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일어나셨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따라서 부활은 시신이 옮겨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일어나신 사건이다.

#### **8-9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무덤 안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믿더라**”(ἐπίστευσεν, 에피스튜센)는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은 믿음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보고 사실을 받아들인 믿음을 나타낸다.

즉, 제자들은 ‘빈 무덤’이라는 현상은 인정하였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부활의 본질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

이 장면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 주는 동시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이해와 인식보다 앞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부활의 의미는 이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

#### **<빈 무덤 사건의 의미>**

요한복음 20장의 첫 장면인 “빈 무덤 사건”은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표적이며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것을 부활로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따라서 빈 무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로써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주이심이 드러나게 된다.

### **요 20:17 ~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셔야 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간적인 연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붙들지 말라**”(μή μου ἄπτου)는 단순한 접촉의 금지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붙잡아 두려 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통해 성령의 시대를 여셔야 하기 때문이다.

부활은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일 뿐 아니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었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을 붙잡아 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에서 성령을 통한 영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 준다.

### **19절 안식 후 첫날의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이는 그들이 아직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

이때 예수님께서 닫힌 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몸이 더 이상 육체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존재 상태임을 드러낸다.

“**평강이 있을지어다**”(εἰρήνη ὑμῖν)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평강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나타낸다.

###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부활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부활은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동일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제자들의 기쁨은 단순한 만남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기쁨이며, 이후 교회 공동체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보내노라”(πέμπω)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사명을 위임하는 파송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제자들의 사역도 동일한 구원의 사명을 이어 가는 것임을 말한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짐을 나타낸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ἐνεφύσησεν, 에네퓌세센)는 창2:7의 생기 사건을 연상시키며, 새로운 영적 생명과 사명의 시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생령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것은 새로운 영적 생명과 사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령 강림의 완전한 성취라기보다, 이후 오순절에 나타날 성령 사역의 시작을 보여 주는 장면이며,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에 대한 것이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죄 사함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권세를 의미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거부하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권세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영적 권세이며, 복음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권세라고 할 수 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홀연히 나타나신 예수님의 형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단순히 부활 이전의 인성을 지닌 상태가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즉, 성육신의 육체와는 다른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몸은 단순히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영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분이시기에 나타나실 수 있다.

**24절 열두 제자 중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는 그의 신중하고 현실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불신이라기보다 확실한 확인을 요구하는 태도였다.

**25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는 인간이 감각적 경험과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여 믿음을 형성하려는 한계를 보여 준다.

그가 요구한 것은 십자가의 흔적인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동일한 분이심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은 다시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다시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여기에서도 “문들이 닫혔는데”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이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 주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 상태임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평강이며,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선언이다.

**27절 ~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서는 도마가 요구한 그대로 자신을 확인하도록 하시며, 그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끄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의심을 정죄하기보다 나약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의심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나이다.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이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κύριος, 퀴리오스)이요 “나의 하나님”(θεός, 데오스)으로 고백한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시작된 말씀이 부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음을 보여 주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이심을 확증하는 고백이다.

**29절**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의 믿음을 받아들이시면서도 더 큰 믿음의 원리를 제시하신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앞으로의 믿음은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후 시대의 모든 신자를 가리키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언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믿게 되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다.

**30-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여기서 “표적”(σημεῖον)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구원의 책이며,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 <Epilogue>

주님의 말씀은 부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부활 이전의 말씀은 구원자로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며, 부활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실행하도록 명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사역을 준비시켰고, 부활 이후에는 그 준비된 사역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하셨다.

사도들의 사역 또한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성령강림 이전에는 준비의 단계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와 성령강림 이후의 공통점은, 준비되었던 사역이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부활은 단순한 승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흐름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아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결국 부활 신앙은 단순한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 <부활 이후 예수님의 말씀>

<마 28:19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막 16:15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주일 예배의 성경적 근거>

**요 20: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다.

이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이후 초대교회가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의 기초가 되는 날이다.

같은 장면이 **눅24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고(**36-43**), 말씀을 전하시며(**44-49**), 성도들을 축복하셨다(**50-51**). 이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52**).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구속 사역의 완성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계1: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행20:7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 곧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날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주의 날”, 곧 주일은 성도들이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날이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어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의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따라 <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요4장** 예배의 개념)

## 〈‘안식일’과 ‘주의 날’〉 의미

안식일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지닌다.

안식일은 단순한 하루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신앙적 제도이다.

‘안식’(שָׁבַט, 샤바트 :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이라는 개념은 창2:2에서 처음 나타난다.

**<창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한다.

**<출20:10-11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로 제정되었으며, 이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31:13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출31:13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니...>**

여기서 안식일은 인간이 임의로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날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확인된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본질은 ‘날’(day) 자체가 아니라 ‘쉼’(rest)에 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속한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의 안식’은 구별되어야 한다>

<창 2:1-2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2:2 ‘안식’은 단순한 ‘쉼’이라기보다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며 다스리는 단계로 들어가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 사역과 함께,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창2:8에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세우신 것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성된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창조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출31:13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레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한다면, ‘사람의 안식’은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사람을 두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의 안식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식일의 의미는 신5: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 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을 기억하는 날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데 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창조 목적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의 날>(κυριακή ἡμέρα, 쿼리아케 헤메라)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날이라 할 수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던 안식일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로 나타난 것이 곧 ‘주일’이다.

**<막2:2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안식일이 인간을 억압하는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제도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앙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율법 아래에서 지켜지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나타난 것이 <주일>이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이날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의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따라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러져야 하며, 그분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드러지는 것이다.

## < 제 21 장 >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특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사명의 위임이 나타났다면, 21장은 그 사명을 실제로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보여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아직 사명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 요 21:1-14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소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처음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기 위한 것이며, “나타내셨다”(ἐφανερώσεν)는 단순히 모습을 보이셨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의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주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며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온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열 제자와 열한 제자, 디베랴 바닷가의 일곱 제자, 갈릴리에서 제자들, 오백여 형제들,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러한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신앙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한다.

####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이 행동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라기보다 아직 사명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상태를 보여 주며, 결실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참된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라는 표현은 밤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을 보여 준다.

#### 6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장면은 처음 부르심의 사건과 연결되며,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제자들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9절** 육지에 올라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 베드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수고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속에서 사용됨을 보여 준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순종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 **11절** ‘큰 물고기가 153 마리’의 의미

이 숫자는 특별한 상징을 의미하기보다는,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라.

이 사건이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차례 제자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셨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았음에도,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첫째**,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의 지배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은 그대로였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다.

**둘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승천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왔다.

셋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 그 기대는 무너졌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넷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자, 현실이 보였기 때문이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생계를 위해 익숙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된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실망하고 흔들리게 된다.

이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평안과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앞세울 때 그 약속은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1절),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6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며(15절) 회복과 소망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명을 일깨우시며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요 21:15-19 베드로의 사명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과 앞으로 사명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다.

### I.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음의 의미?

#### 1. 21:15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ἀγαπάω 아가파오) 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πλεον τούτων.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Love me more than these)

‘투톤’(τούτων)은 ‘호’(ὁ)와 ‘아우토스’(αὐτός)에서 유래한 지시대명사인 ‘이것’을 의미하는

‘후토스’(οὗτος)인 ‘this’의 복수 ‘these(이것들)’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려 했던 어부의 삶과 물고기, 곧 세상의 생업과 현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네가 그 삶과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Feed My Lambs)는 말씀을 통해 사명의 시작을 맡기신다.

## 2. 21:16 “네가 나를 사랑(ἀγαπάω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것들 보다’의 비교가 사라지고 사랑 자체를 묻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Tend My Sheep)

말씀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는 목자의 사명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헌신과 책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 준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때때로 세상의 관계와 소유를 내려놓는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헌신의 사랑’(아가페)을 요구하신 것이다.

## 3. 21:17 “네가 나를 사랑(φιλέω 필레오)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하신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Feed My Sheep)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8-19절에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언하신 것이다.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 과거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확인시키는 말씀이다.

## II. 베드로가 “아가파오”의 질문에 “필레오”로 대답한 의미?

‘아가파오’(ἀγαπάω)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베드로는 세 번 모두 “필레오”(φιλέω)의 사랑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예수님 질문의 의미를 알면서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생명을 드릴 만큼의 사랑을 말할 수는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 III.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필레오”로 물으신 의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로 물으심으로 그의 상태를 받아들이셨다. 이는 그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믿음에서 출발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는 “지금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따르라”는 의미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필레오’의 사랑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신 것이다.

※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헌신된 사역을 감당하였고, AD 64년경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순교’했다.

### IV.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세 번 명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며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명은 <마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나타낸다.

#### 1.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어린 양”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 곧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제자로 삼으며,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양육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곧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와 초기 양육의 사역을 말한다.

#### 2. 내 양을 치라. (Tend My Sheep)

두 번째 명령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양”(πρόβατα, 프로바타)을 말씀하신다.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양육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곧 말씀을 받고 자라 가는 자들을 가리킨다.

“치라”(ποιμαίνε, 포이마이네)는 단순히 먹이는 것을 넘어, 돌보고, 보호하며, 인도하여 바른길로 이끄는 목자의 사역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악한 세력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며,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성숙하게 하며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도록 세우라는 뜻이다.

목자의 사명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을 포함한 전인적인 사역이며, 교회의 사명도 사람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세워 가는 데 있다.

### 3.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자라도록 양육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 반복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을 의미한다.

“어린 양을 먹이라”가 전도와 초기 양육을 뜻하고, “양을 치라”가 보호와 인도를 뜻한다면, 마지막의 “내 양을 먹이라”는 이미 세워진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먹이라는 뜻이다.

이 명령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라는 것이다.

특히 “먹이라”는 명령이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된 것은, 교회의 중심 사역이 결국 말씀을 공급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며, 성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자 중심 사역은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역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다.

따라서 목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으며, 단순히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또한 “내 양”이라는 표현은 양이 주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며, 목자는 성도들을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을 맡아 돌보는 청지기임을 나타낸다.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역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요 21:22**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매우 분명하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는 제자의 삶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명과 삶의 길을 주신다.

신앙의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궁금해하거나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요 21:24**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은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보고 기록한 증언임을 밝힌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전승이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도의 증언이며,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참된 증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 21: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록이다.

## <요한복음 요약>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드러내는 복음서이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부르심은 과거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될 것이다.

## <요한복음의 본질>

성경은 창1장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 주고, 계21장 ‘새 하나님나라 완성’으로 끝을 맺고 있다. 즉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구속의 역사이다.

요한복음 역시 1장 하나님의 ‘성육신’(Incarnation)으로 시작하여, 21장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교회의 사명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마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위임령’(Great Commission)이다.

이 위임령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복음의 기록이 아니라,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의미를 밝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사명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다.

결국 요한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사명에 있다.